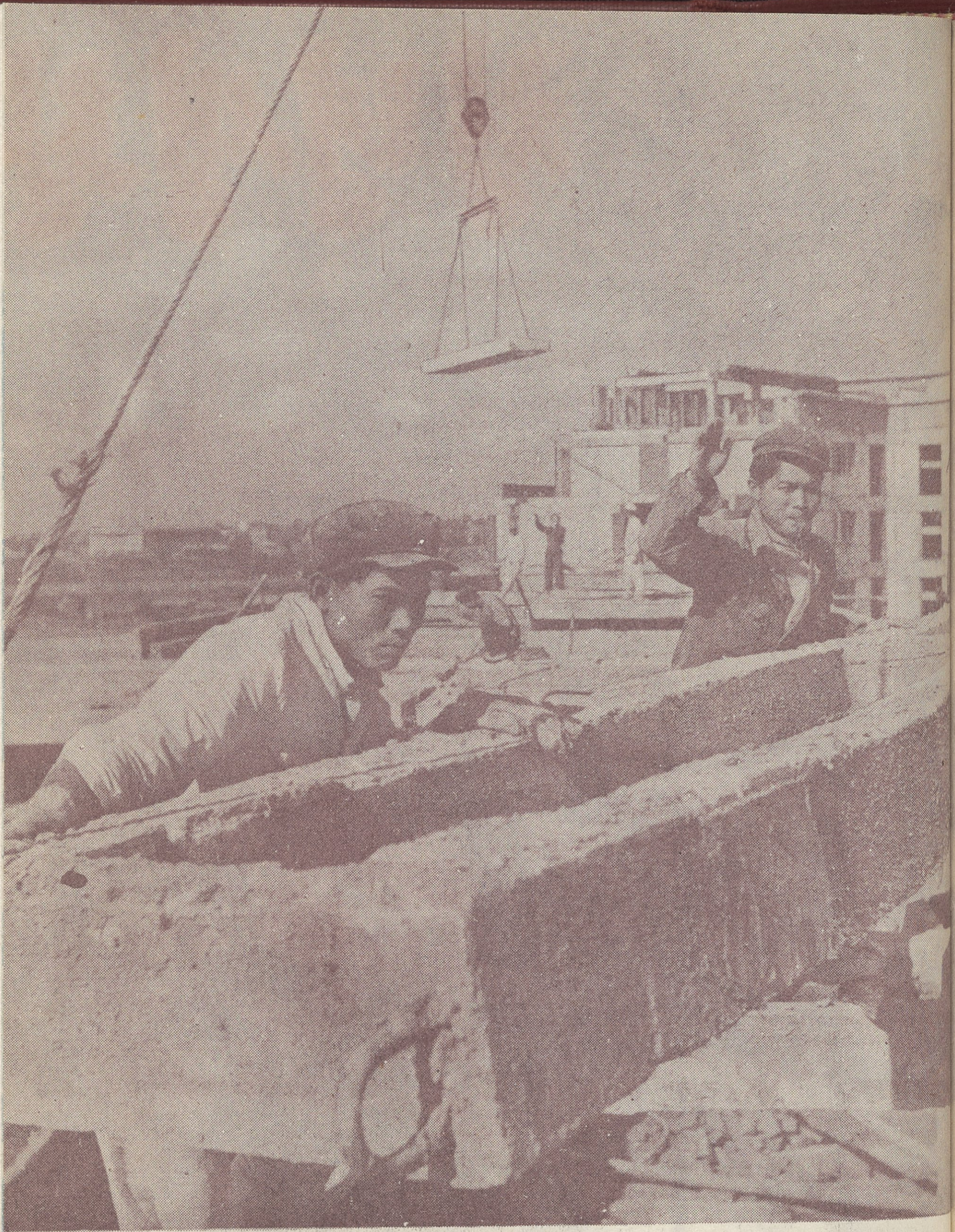
청년생활



1957. 12



표지 1면 : 그들은 농촌 청년 학교로 간다. ……………전 인호 그림
2면 : 부로크에 의한 조립식 건설은 한창이다. ……최 윤 촬영
4면 : 배천군 금성 농업 협동 조합 민청원들
의 영농 크루쇼크 모임……………………………강 상현 촬영

청년생활 1957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조선 로동당에 영광을 드린다

찬란한 승리와 성과로 하여 우리의 온 심장을 드높이 고동치게 한 보람찬 이해—1957년도 저물어 가고 있다.

해방 후 우리는 열두해를 보냈다.

그 어느 해인들 자랑과 긍지 없이 보냈으련만 우리 력사에서 처음인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를 구축할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1957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자신들이 이룩한 업적들을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총화하며 동시에 조선 로동당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를 새로이 한다.

회상의 실마리를 풀어 1년전—새해를 맞이하던 그때를 더듬어 보자.

얼마나 많은 일들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었던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쌓아 올린 이 한해의 승리의 봉우리 우에서 우리들 자신의 빛나는 성과를 회고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에서 거대한 물질적 및 정신적 앙양을 가져오게한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에로 우리들을 부른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필승의 신념을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거리와 마을, 공장과 전야에서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를 승리적으로 빛내이는 위대한 진군이 개시되였다. 당이 가르키는 승리의 길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전대 미문의 강인성과 헌신성으로 증산과 절약을 위한 예비를 찾아 내였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이 불러 이르킨 근로자들의 앙양된 정신적 및 로력적 열의는 현실에 눈이 어두운 모든 낡은 일'군들과 락오자들을 깨우쳐 이끌면서 새로운 기적과 승리를 창조케 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정확한 령도 아래 마침내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은 강선 제강소, 황해 제철소, 김책 제철소, 대안 전기 공장, 흥남 비료 공장, 평양 방직 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년간 계획의 승리적 결실을 보았다.

어찌 이뿐이랴!

이 한해에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 시설과 장비를 갖춘 갑산 광산, 하루에 180평방메터의 바리케트를 제작하고 30 립방메터의 목재를 켤 수 있는 평양 목재 용기 공장, 매일 75,000 명이 옷을 해 입을 45만 메터의 각종 직물을 염색 가공하는 평양 방직 공장 염색 직장, 그리고 남포 제련소 동 제련 직장 및 아연 직장, 흥남 비료 공장 질안 직장, 사리원 뜨락또르 수리 공장, 평양 가구 공장 등 수많은 새로운 공장과 기업소, 직장들이 자기의 웅대한 모습을 나타내였다.

이러한 새로운 공장과 직장의 조업 개시로 하여 우리의 공업은 보다 강력하여졌으며 새로운 기술로 무장되였다.

우리는 이 한해에 우리의 농촌에서 벌어진 위대한 전변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말하여야 한다.

1957년을 맞으면서 당은 340만톤의 알곡 증산을 결의하여 나선 농민들의 애국적 열성을 지지하였다. 중, 소 관개 하천 공사를 진행하며 랭상모를 실시하여 몇십년래의 혹심한 가물을 이겨내는 위대한 사업이 농촌에서 벌어졌다. 그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당이 제시한 농산 부문의 과제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우리는 지난 한해를 회고하면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진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굳게 손을 잡은 우리 나라 농민들은 벌써 그의 90.5% 이상이 사회주의 협동화의 길에 들어 섰다.

이 한해에 우리가 이룩한 이와 같은 승리와 성과는 결코 평탄한 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 둥지를 튼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유엔군 사령부》의 서울에로의 이전,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략탈과 만행,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파괴, 암해 행위의 심화 등 우리의 승리와 성과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과 발악을 다 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어떠한 책동도 발악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한해를 회고하면서 당과 인민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날뛰였으며 온갖 비방과 중상과 음모로 우리들을 당으로부터 떼여 내려고 시도한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김 승화, 리 상조, 고 봉기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행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격분과 증오를 다시금 느낀다.

한줌도 못되는 이 반당 종파 분자들은 우리들이 땀을 흘리며 조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 우리의 승리를 파괴하며 우리들을 당으로 부터 떼여 내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강철 같이 뭉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없었다.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진장한 력량은 무엇보다 지난 8월에 있은 최고 인민 회의 선거에서 남김 없이 표시되였다.

우리는 최고 인민 회의 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우리의 인민 정권의 불패의 견고성과 생활

력을 과시 하였으며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하는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집결된 우리 인민의 통일과 그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시위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은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국가 인민들과 우리 인민간의 친선 단결을 파괴하며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10월 혁명 40주년을 경축하는 거대한 정치적, 로력적 열의로써 우리의 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였으며 형제적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결의를 더욱 높이 자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쏘련을 선두로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고한 단결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불패의 통일을 시위한 모쓰크바 회의의 성과와 그의 선언들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들은 다시금 조선 로동당을 자기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 따르고 있음을 크나큰 영광과 기쁨으로 확신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빛나는 승리와 성과로 찬란한 이 한해를 회고하면서 조국 건설의 선도자인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당과 조국 앞에 지닌 자기들의 숭고한 임무를 보람있게 실천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영예를 무한한 기쁨으로 자랑한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 감당하면서 새로운 승리와 기적의 창조를 위하여 자기들의 청춘과 정열을 바쳐 왔다.

대안 전기 공장 리 연순, 평양 방직 공장 주 병선 등 수많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자기의 창조적 로력 투쟁으로 년간 계획을 수개월 앞당겨 완수하는 위훈을 세웠다.

우리 인민들은 이해에 크다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송남 청년 탄광 개발 첫 참가자들인 용감하고 애국적인 민청원들을 보냈다.

그들은 벌써 험상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면서 처녀지에 탄광 마을을 건설하고 있으며 년 40—50만톤의 석탄을 생산할 그날에로 돌격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10만 정보 이상의 과수원 확장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고 궐기한 애국적 청년들의 대부대와 자기의 꾸준한 학습으로 우리 나라의 기술 핵심인 기사, 기수의 대렬에 들어선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

실로 이 한해에 우리가 이룩한 승리와 성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크며 찬란하다.

이 모든 찬란한 승리와 성과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전진을 의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촉진을 의미한다.

조국의 력사를 보다 휘황하게 한 이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들은 의례히 이것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귀중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을 하루같이 사랑을 베풀어준 자기 안해와 어머니에 대하여, 동지섯달 기나긴 밤에도 작업장에서 함께 밝히며 일을 보살피고 도와준 자기 공장의 지배인과 브리가다장에 대하여, 힘겨운 일 앞에서 물러서려할 때 진심으로 깨우쳐 주고 이끌어준 다정한 전우들에 대하여 어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귀중한것 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들은 이에 대하여 서슴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이다. 우리들의 모든 승리와 성과는 로동당이 마련하여 주었으며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었다.

그렇다. 로동당,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큰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부르는 것인가!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나와 함께 있으며 나에게 있어서 모든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나의 당이 주었다는 이 현실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데 있겠는가!

하늘을 치솟으며 일떠서는 공장과 다층 주택의 벽돌장 마다에, 아침마다 웃음을 날리며 학교로 가는 어린 학생들의 발거름 마다에, 우리 생활의 모든 갈피 마다에서 당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3개년 계획에서 쌓아 올린 승리의 봉우리 우에 또다시 그린 새로운 금자탑을 세운 거대한 성과에 대하여 우리들이 이처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게된 것도 오직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해 동안의 자기 사업의 훌륭한 성과들을 총화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들과 더부러 들끓는 환희와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당이여! 영광을 드리노라!

이제 우리들은 1958년의 보다 위대한 생활의 거류 속으로 뛰여 들게 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두번째 해! 그 벽두에 로동당 대표자 회의가 있는 이해는 보다 영예롭고 보다 용감한 그런 일을 우리의 억세인 두어깨와 우리의 심장에 맡길 것이다. 우리는 로동당 대표자 회의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써 영예롭게 맞이해야 한다. 새해에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는 더욱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일 천추의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더욱 한걸음 앞당겨질 것이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여! 찬란한 새해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신들메를 더욱 든든히 매라! 각 공장 기업소와 농촌에서 벌어지는 12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 총화에 다 같이 주인답게 참가하자! 그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첫해 과제의 승리적 실행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반석처럼 굳게 다져 1958년 과제 실행에 창조적으로 도입하자!



승리의 기쁨 속에서

강선 제강소 붕괴직장
압연공 정 관 호

나는 금년도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높은 뜻을 받들어 1만톤의 강편을 국가 계획보다 더 초과 생산하기 위한 우리 붕괴 직장의 결의 실천에서 나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아낌 없이 바칠것을 맹세하였다.

나와 나의 벗들의 맹세는 헛되지 않았다. 우리 직장 로동자들은 지난 11월 중순까지 그 결의를 빛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2만톤



의 증산 목표를 더 내걸고 그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빛나는 증산 투쟁에서 청년들은 항상 앞장에 섰다. 증산과 절약에서 온갖 예비를 탐구 동원하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우리 청년들은 1인 1건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여 가열로의 가스 장치와 절단기의 수압 장치 등을 개조하였으며 기계의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였다. 나도 절단장의 강그로라를 25메터나 연장하고 압연 작업에서 련속식 방법을 적용하여 강괴의 압연기 통과 회수를 작년도의 평균 17회로부터 13회로 단축함으로써 기계의 가동률을 국가 계획보다 121%나 제고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생산 계획을 지난 10월달까지 완수하였다. 물론 그를 위하여서는 자체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높은 기술적 숙련이 없이는 자기가 맡은 일의 능수도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높은 생산량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귀중한 교훈이며 결론이다.

이제 5개년 계획의 첫해 계획을 완수해놓고 보니 지난 일이 새삼스

럽게 자랑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걸어야할 앞길을 내다보니 더 어렵고도 영예로운 언덕이 보이고 그래서 방금 5개년 계획의 문턱을 넘어선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나 명년도엔 더 높은 기술 습득과 예비 동원으로써 자기 계획을 보다 빛나게 완수하며 새로운 생산 기록을 창조하리란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바이다. 이것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앞에 드리는 나의 신성한 맹세이다.

이 맹세도 반드시 실천되고야 말 것이다.

보람찬 로력의 열매

평양 방직 공장 청년 직장
정방공 김 복 실

금년도에 나에게 마껴진 국가 과제는 방적사 14톤 632키로그람을 생산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 로동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이것을 11월 25일까지 완수하며 년말까지는 3톤 700키로그람의 방적사를 더 증산할 것을 국가 앞에 결의하였었습니다.

나는 이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을가? 어떻게 하면 순회 시간과 계사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을가?》

하는 생각을 1차적인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결의를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인민 경제를 더 한층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영예감과 더부러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더 좋아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작업에 옮겨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사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일을 해보다가 그날 계획을 실행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았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연구를 거듭한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던 중 나의 끊임 없는 노력은 드디여 일면 순회법 보다 량면 순회법이 우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 량면 순회법은 같은 속도의 동작으로서 순회 시간을 퍽 단축시키는바 이 방법으로 나는 1시간에 10 그람의 방적사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예비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쏘련 인민들이 보내준 선진적 신방적기가 요구하는 수준의 표준 조작법을 능히 준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종전보다 배가로 되는 작업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바 그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무엇보다 표준 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증산의 고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험

과 교훈을 살려 매일 매일의 계획량을 넘쳐 실행하기에 힘 썼습니다. 드디여 나는 지난 5월 30일까지에 금년도 과제를 달성하는 승리의 영예를 지니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부터는 증산을 위한 일간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나날은 나로 하여금 마침내 10월 30일 현재로 31톤 442키로그람의 방적사를 생산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신의 과제를 218%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나는 년말까지 도합 4톤의 방적사를 더 증산함으로써 나에게 부과된 국가 계획을 총체적으로 278.3%로 초과 완수할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 보급으로써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
농업 기수 장 세 근

우리 조합에서는 금년에 면화 재배 면적을 30—37정보로 확장하고 정당 수확고를 평균 1톤 100키로그람으로 높일 것을 계획하였다. 나는 내가 우리 조합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조합의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면화의 선진 재배 기술을 적극 보급할 것을 년초에 결의하였었다.



나는 이 결의 실천을 위하여 지난 1년간 열성을 다하였다. 청년 야간 기술 학교를 지도함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특히 면화의 선진 재배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면화의 종자 처리로부터 제초, 추비, 써슴음 및 중경, 한발과의 투쟁 대책, 병충해와의 투쟁에 관한 리론을 실천과 결부시켜가면서 가르쳤다. 많은 면적에다 영양단지 가식법을 적용하였다. 실험 포전에는 면화도 심어놓고 여러가지 조건에서 면화가 성장하는 상태를 젊은 조합원들과 함께 연구하였다. 학습을 통하여 지난해 면화 재배에서 있었던 결함을 명확히 알게 되였고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재배법도 알아내게 되였다.

경험을 살려 적지 선정을 정확히 하였다. 면화밭의 기경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게 토양 습도가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였다. 자급비료도 작년보다 정당 5톤을 더하여 정당 25톤씩 주었다. 파종은 종자 처리를 철저히 한 다음 4월 20일경에는 완전히 끝나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립종이 잘되게 되였다.

이런 결과 금년에 가물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정당 1톤 200키로그람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였다. 그리고 소비 류통 부문에서도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적지않은 도시 소생산 경리자들이 사회주의적 협동화의 길에 들어 섰다. 따라서 개인 상공업의 상품 원천과 판로는 축소되였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개인 상공업자들로 말미암아 소비 류통 부문에서 극히 적은 것이나마 이러저러한 현상은 남아 있으며 이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에 적지않은 해를 주고 있으며 의연히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인 상공업자들에게 사회주의적 교양을 강화하면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로 하여금 공화국 공민으로서 떳떳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된 생활의 길을 열어주는 일은 아주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개인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날 개인 상공업자들이 모리 간상배짓을 함으로써 국가 상업 류통 부문에 해독을 끼친 사실은 적지 않다.

우리들은 지난 시기 일부 개인

상공업자들의 악덕 행위를 얼마나 증오에 찬 눈으로 보았으며 치솟는 분격의 마음으로 들었던가!

얼마전에 공화국 정부에서는 개인 상공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데 대한 내각 결정 제 104호를 채택하고 이의 실행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내세웠다.

내각 결정에 의하면 개인 상공업자들을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각종 협동 단체에 망라시켜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무엇 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들을 점차 생산적 방향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생산—판매 협동 조합을 확대 강화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의 소생산 경리자들과 개인 상인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키는 것이 선차적 과업이다.

그러면 각종 협동 조합에 들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 상공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이 어디까지나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량심적으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길—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이 아직 덜 미치고 있는 그런 부문에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 수행해야 할 길만이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이다.

내각 결정 제 104호에 의하여 국가는 생산 판매 협동 조합과 개인 상인들에게 일부 국가 상품을 1958년 1월 1일부터 특약 판매하게 되였다.

또한 개인 상공업의 무허가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957년 12월 1일 현재로 이미 발표한 허가를 일체 갱신하게 되였다. 그리고 자유 시장에서의 국가 상품에 의한 모리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57년 12월 1일부터 국가 제품과 그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판매하는(국가 수입품 포함)일체 개인 상인들과 생산 판매 협동 조합들에 대해서는 유일 국정 소매 가격에 의하여 팔며 국가 제품을 원료로 한 가공 제품으로서 국정 소매 가격이 결정되여 있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각 시,군 (구역)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그를 결정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가 및 수공업자들이 만드는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58년 1월 1일부터 그들의 생산 제품에 대한 검사제를 실시하게 되였다.

우리들은 이 결정의 성과적 실행이 곧 개인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키는 확고한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며 그의 실행을 위한 완강한 투쟁에 모두다 모범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개인 상공업자들 가운데는 민청원들과 청년들도 있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이들과 함께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로동당의 정책을 꾸준히 해설 선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젊은 개인 상공업자들로 하여금 그의 행복은 곧 당의 정책을 따르는 데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함흥시 민청 단체들은 상인 청년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시 민청은 시내 상인 청년들의 본궁 화학 공장 견학을 조직하였으며 그들과 로동 청년들의 상봉을 조직하였다. 이런 결과 일부 상인 청년들 속에서는 과거에 자기들이 비량심적으로 폭리상행위를 한데 대해서 자백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동무들이 나섰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이런 경험을 신속히 일반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민청 단체들은 젊은 개인 상공업자들로 하여금 솔선 자원하여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망라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미 조합에 망라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소개하며 조합의 훌륭한 생활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사업 분야에서 가두 민청 단체의 역할은 극히 크다. 가두 민청 단체는 젊은 개인 상공업자들을 협동 조합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자주 접촉시키며 그들이 자기의 눈과 귀로 협동화의 우월성을 보고 듣게 해야 한다.

우리들의 주위에 개인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친척들을 설복시켜 협동 조합에 들게 한 그런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적지 않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이런 모범성으로써 다른 개인 상공업자의 자제들인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교양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과 함께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일부 개인 상공업자들의 악덕 행위를 용서없이 대담하게 폭로하도록 교양하는 문제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키는 길에서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초급 민청 단체 사업을 개선 강화하자!

오늘 우리 앞에는 민주 청년 동맹의 기본 조직인 초급 민청 단체들의 전투력을 일층 높이며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보다 튼튼히 집결시켜야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초급 민청 단체를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여 그의 자립적 역할을 일층 높임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초급 민청 단체의 건실한 활동이야 말로 민청의 전반적 사업 성과의 기초로 되는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적지 않는 초급 민청 단체들의 활동은 우리 앞에 조성된 정세와 제기된 혁명 과업 및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4차 전원 회의는 초급 민청 단체 사업을 개선할 대책들을 토의하고 그의 사업 개선 강화에 전 동맹적 력량을 집중할 것을 제기하였다.

1. 오늘 날 어찌하여 초급 민청 단체를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문제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초급 민청 단체를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의 기본 출발점으로 되는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날 어찌하여 초급 민청 단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그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의 의식이 아직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조선 로동당의 올바른 령도와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오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경리 형태는 결정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바 농촌 부문만 보더라도 90.5% 이상에 달하는 농가호수가 사회주의적인 경리 형태인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혁들은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 불과 몇해 전만 해도 우리 나라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그의 절대 다수가 개인 경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이런데로 부터 우리의 대다수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며 일한 력사가 매우 짧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그들은 개인 경리 형태에서 일하며 살았다.

사람의 의식이란 한두해로서는 쉽게 개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의식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되여 가는 사회주의 건설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낡은 의식은 사회주의 건설의 적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사람의 의식을 새로운 의식 즉 사회주의 의식으로 개조하여야 하는 바 이의 성과적 해결은 초급 민청 단체를 강화하는데서 이루어 진다.

다음으로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되여 적들과 상치되여 있는 사정은 초급 민청 단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틈만 있으면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공화국 북반부에 침습시켜 우리 진영을 내부로 부터 파괴, 와해해 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또한 지난 기간 우리 나라는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정책으로 공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농업이 전체 산업의 압도적 지위를 차지 하였다. 때문에 로동 계급이 청소했고 주민의 대다수가 소상품 경리에 얽매워 있었다.

뿐만 아니라 로동 운동 내부에서 반당적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 행위가 심하였고 그의 영향이 오래' 동안 계속되였다.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일제의 조선 강점 시기에는 모두가 나어린 소년이였다. 그러니만큼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청년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그들의 대다수가 자본가나 지주들의 착취와 억압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해방 후 조국을 위한 창조적 로동에 참가한 년한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청년들은 혁명 투쟁과 로동을 통한 사상 단련이 매우 부족하다.

오늘 우리 민청에는 로동 청년, 농민 청년을 비롯한 각이한 견해와 신념을 가진 각계층 청년들이 망라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민청에 가맹한 시일이 그다지 길지 못하며 대부분이 정전 이후에 가맹한 민청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 단련과 조직적 훈련이 부족하다.

이상에서 말한 모든 사정들은 현 시기 민청원들의 실지 생활 처소로 되고 있는 초급 민청 단체를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화하여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초급 민청 단체 사업을 어떻게 개선 강화할 것인가?

1. 초급 민청 단체를 튼튼히 하자면 우선 초급 민청 단체의 내부 사업을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여야한다.

초급 민청 단체의 전투력을 높이자면 규약상 원칙에 의하여 민청

조직에 망라된 매개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청원들이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조직 생활에 대한 민청원들의 자각적인 태도는 우선 무엇보다도 민청원들이 그가 영광스런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 대렬의 떳떳한 성원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 투사로서의 영예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민청에 대한 옳은 인식과 민청원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옳게 인식못한다면 그는 민청 생활에 충실할 수도, 민청원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자각적으로 수행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매개 민청원들에게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임무와 역할을 철저히 인식 시키며 민청원이란 영광스러운 칭호에 대하여 높은 자부심을 갖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보장하자면 매개 민청원들이 민청 규약, 특히 민청원들의 의무와 권리를 철저히 인식시켜야 하며 민청 규약에 명시된 제 원칙에 립각하여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을 강력히 지도 통제하며 그들의 규약상 의무 실행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에게 민청내 제반 규정, 제도와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며 그의 정치적 의의를 충분히 해석하여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맹원증을 소중히 보관할 것과, 자기 조직을 물질적으로 방조하는 규약상 의무이며 민청원들의 조직적 각성을 높이는 교양 수단인 맹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를 정확히 납부하도록 교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민청원들이 동맹 조직 생활에서 유리되는 현상이 없도록 맹적 정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민청 총회와 집행 위원회와 민청 분조들의 활동을 높이는 것이다.

초급 민청 단체 총회는 민청원들을 정치 문화적으로 교양하며 조직적으로 단련하는 학교이며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의 기본 단위이다. 때문에 총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민청원들이 총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는 매시기 제기되는 당과 정부 정책과 그를 실행하기 위한 상급 민청 단체의 결정 실행을 토의하며 민청원들의 조직 사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민청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총회에서는 민청원들의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되여야 하며 옳지않은 행동들에 대하여 주저없이 비판 시정되여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는 민청원들에게 과업을 위임하고 그 실행을 조직하고 검토, 총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를 수시로 조직하여 총회 결정 집행 정형 및 위원들의 활동 정형과 민청원들의 위임 실행 정형 등을 검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개별적 민청원들에 대한 개별 지도를 조직해야 한다.

특히 초급 민청 단체의 일부분으로서의 민청 분조들의 활동을 높임으로써 민청 분조로 하여금 초급 민청 단체가 제기한 과업을 민청원들 속에 해석 침투하며 그 실행을 위하여 분공 사업을 조직하며 민청원들의

일상적인 조직 생활과 사상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초급 민청 단체를 강화함에 있어서 비판과 자기 비판은 큰 의의를 갖는바 조직 생활에 대한 온갖 불성실한 현상에 대하여 비타협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초급 민청 단체는 각계층 청년들과 일상적으로 련계를 맺고 이들에게 민청의 영향을 주어 그들과의 단결과 통일을 강화하며 민청 대렬 밖에 있는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여 민청 대렬에 받아 들이며 가맹후 민청원의 영예를 간직하고 조직 생활에 충실하도록 가맹 전 시기부터 교양하여야 한다.

2.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사상 단련과 사상 개조 사업을 강화하여야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의 사상 단련의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당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옹호자로 그의 열렬한 실천자로 되게하며 생활과 행동에서 낡은 사상, 잔재와 그의 침습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개조하는데 있다.

그러자면 우선 그들 속에 당 정책과 그의 정당성을 철저히 해석 인식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 실천에서 동요할 줄 모르는 헌신적인 투사가 되게하며 당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그를 비방, 외곡하는 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조선 로동당의 투쟁 력사와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혁명 선배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교양하며 우리 혁명 사업에 끼친 반당 종파 분자들의 범죄적 행동을 증오 규탄할 줄 알게하여야 한다. 특히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리 승엽 도당과 혁명의 변절자인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며 그들의 사상적 여독이 청년들 속에 침습되지 않도록 반대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은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만큼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온갖 반 혁명 요소를 식별할 수 있게 준비시키며 반 혁명 분자들의 정체와 그의 수'법, 그와의 투쟁 방법을 인내성있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 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일체 낡은 사상 잔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온갖 불건전한 현상들을 적발 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상 투쟁은 민청의 조직 생활의 전반적 사업에서 일상적으로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 사상 단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일상적으로 그들의 사상 정치 생활을 집체적으로 로의 연구하며 개별적인 지도를 통하여 그들의 사상 정치 생활을 방조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습성들을 로동과 교양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를 통하여 그들의 가정에 까지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사상 단련과

사상 개조를 위하여 민청내 각종 교양 수단을 옳게 리용할것인바 민청 학습반은 그의 가장 중요한 교양 수단이다. 그러므로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 학습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그의 사상적 수준을 높이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의 학습 정형을 수시로 총회 또는 집행 위원회에서 토의하며 민청원들의 학습 노—트를 검열하며 학습한 문제에 대한 토론 및 담화를 통하여 그들의 학습을 일상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급 민청 단체는 신문《민주 청년》 잡지 《청년 생활》을 비롯한 각종 서적들을 전체 민청원들이 읽을 수 있게 륜독제를 조직하며 정기적으로 독보회를 운영하는 등 출판물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직관물 선전 특히 벽보, 속보들을 발간하여 청년들의 건전한 생활과 경험을 지지 보급하며 불순한 사상 경향과 행동들을 폭로하며 청년들을 당 정책 수행에로 고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 새로운 사회주의 도덕과 문화 생활의 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청년들 속에서 진행하는 문화 사업은 청년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배양하며 청년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다.

다양한 문화 생활에 대한 무관심은 민청원들로 하여금 민청 생활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불건전하게 생활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때문에 초급 민청 단체는 우선 청년들의 일상 생활을 문화적으로 조직하도록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하는바 작업장, 합숙 및 가정을 깨끗하고 건전하게 꾸리며 온갖 불결하고 닥치는대로 살려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초급 민청 단체는 각종 연예 써클을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합창단을 조직하며 중창 무용, 연극 등을 군중적으로 보급하며 특히 건설적인 노래와 혁명 가요들을 대중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수시로 써클 발표회, 영화나 연극, 미술, 음악 등 감상회를 조직하며 청년들 속에 장기, 재담, 만담 등을 장려하며 광범한 군중 오락을 조직하는 동시에 라지오를 집단적으로 청취하는 사업들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 속에 독서 사업을 대중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청년들에게 각종 서적을 알선해 주며 지정 독서제를 실시하며 《독서조》 사업에 광범한 청년들이 적극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극히 적은 수'자이지만 재문맹화된 청년들의 문맹 퇴치와 성인 학교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여 계통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초급 민청 단체는 청년들 속에서 체육 스포츠 사업을 옳게 조직해야 하는바 청년들이 인민 체력 검정 시험에 적극 응시하도록 준비시키며 인민 보건 체조를 군중적으로 전개하며 륙상, 씨름, 그네, 산보, 등산, 철봉, 평행봉 등 기타 다양한 체육 사업을 광범히 조직 실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문화 체육 기자재들을 청년들의 손으로 마련하며 민주 선전실, 구락부 등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초급 민청 단체는 청년들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 따라서 당이 청년들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때문에 초급 민청 단체는 조선 로동당의 경제 정책을 민청원들 속에 철저히 해석 침투하며 그의 성과적 실천에로 청년들을 적극 고무 추동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로동과 국가 사회 재산에 대한 옳은 관점과 인식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로동 규률을 위반하며 국가 생산 과제를 미달하거나 원료 자재를 랑비 파손하는 등 로동과 소유에 대한 일체 불건실한 현상에 대하여 제때에 집단적 투쟁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초급 민청 단체는 청년들 속에서 선진 과학 기술을 도입하며 기술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청 제 4차 대회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2만명의 기사, 기수를 양성할 데 대하여 제기한 과업을 성과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초급 민청 단체는 증산 경쟁 운동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는 청년들의 증산 경쟁 운동 참가 정형을 수시로 총화 평가하여 우수한 경험을 지지 보급하며 혁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뒤떨어진 자들을 끌어 올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청년 브리가다와 청년 돌격대 운동을 성과있게 추진시키며 그의 사업 정형을 수시로 검토하며 청년 발기 초소를 효과있게 운영해야 한다.

농업 협동 조합내 초급 민청 단체는 조합내에서 진행되는 농업 증산 경쟁 운동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적극 참가시키며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 활동 정형을 수시로 검토하고 그의 지도를 강화하며 조합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항상 어렵고 힘든 부문을 솔선 담당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초급 민청 단체는 항상 사회적으로 유익한 애국적 로동을 발기하고 이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적극 참가시키는 창발적 활동들을 전개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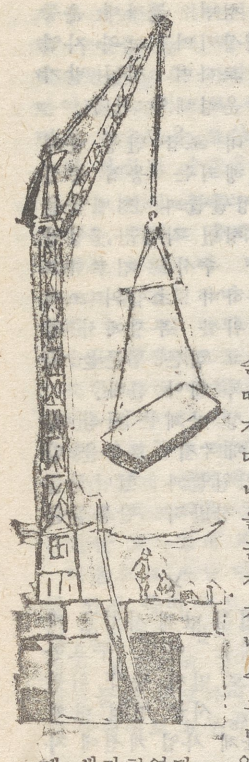
× ×

현 시기 초급 민청 단체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문제는 아주 주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민청 중앙 위원회를 비롯하여 도, 시군 민청 단체들이 초급 민청 단체 사업 개선에 자기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초급 민청 단체 열성자들은 초급 민청 단체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 사업을 연구하며 상급 민청 단체와의 련계를 강화하며 지난 시기의 사업을 총화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할것이다.

특히 금번 진행되는 초급 민청 단체 사업 총결 선거를 계기로 자기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할것이다.

김 한 률



기본 건설의 초소에서

건설 건재 공업성 산하 평양시 제 3 건설 트레스트

민청 위원장 김 희 겸

비온 뒤의 참대 순과도 같이 날을 따라 새 건물들이 자라나는 동평양 다층 주택 거리를 나는 회심의 만족을 품고 돌아다니군 하였다. 나는 정전 이후에 당의 기본 건설 방침을 받들고 우리 트레스트가 지어 놓은 그 많은 집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우리 트레스트에서는 당의 정책을 따라 벌써 조립식 건설도 진행하고 있겠다. 뭐 큰 결함이야 있을라구—하는 것이 대체로 금년 여름까지의 나의 생각이였다. 때문에 나는 유람식으로 일터들을 돌아다니기만 하였었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 트레스트의 민청 단체 사업이 잘 될리 없었다. 내가 이 잘못을 절실히 깨달은 것은 지난 9월부터 근 두달 동안에 걸친 동맹 중앙의 우리 트레스트 민청 단체에 대한 집중 지도가 있었고 그들의 따뜻한 충고가 있은 후부터이다.

나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우리 민청 단체와 민청원들 및 청년들의 내부를 세세히 파보기 시작하였다. 걸핏 보기엔 아무런 커다란 결함들이 없는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건설 작업에서의 혹심한 보수주의가 내부를 파먹고 있었다. 부분적인 민청원들의 여론은 이러하였다. 《아, 조립식이 좋기야 합지요. 그러나 아직도 기계 공업이 덜 발전된 우리 나라에서야 그것이 매우 이릅지요》

《이를 말이요. 일체 건설을 조립식으로 전환시키려면 대규모적인 기계화가 필요한건데—》

우리 기본 건설 분야에 반당 종파분자 김 승화가 뿌려 놓은 사상적 여독이였다. 그런데로부터 부분적 민청원들과 청년들 중에는 기계화를 멀가와하지 않으며 이미 설비된 기계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기계화를 할려면 큰 것이나할 노릇이지 소규모적인 것이야 사람이 하지 무슨 복잡하게 기계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례를 들어 일부 동무들은 건축물의 미장에서 기계 분무기를 쓰면 몸이 더러워 진다는 리유로 그것을 쓰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런데로부터 트레스트 내 기존 설비의 리용률과 기계의 가동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었다. 실례로 지난 1.4분기로부터 3.4분기까지의 기계 가동률을 들어 보자.

엑쓰까와똘 65%, 미장 기계 40.4%, 우인찌 20.8%, 뻬오넬그란 20.3%, 콩크리트 혼합기 31%, 탑형 기중기 70.6%.

이것은 심히 낮은 률이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들이 기계를 애호할리 만무하였다. 금년도에 들어서서 기계의 사고가 76건이나 생겼다.

나는 어느날 로동자 기능 학교에 가보았다. 내가 기억하기엔 분명 104명이였는데 겨우 20여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다.

그보다도 지난 2월에 조직하여 놓은 청년 브리가다, 청년 발기 초소, 청년 절약 초소들의 형편은 더욱 나빴다. 그것들은 정말로 유명 무실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왜 몰랐는가? 리유는 명백하다.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민청 단체 일'군들이 높아가는 건물들만 쳐다 보고 그저 모든 일이 잘 되려니 기대하면서 민청원들 속에 깊이 침투되지 않고 유람식 지도를 한 안일한 사업 작풍에 있었다. 기본 건설 사업에서 우리 민청 단체는 우심한 관료주의를 범하였다. 왜 진작 최 석준이 김 호신 같은 동무들이 《건설 직장에 있으면 벽돌장이나 쥐였지 발전성이 없다》고 하면서 타직장에 가기 위하여 며칠씩이나 무단 결근을 하며 완성 직장의 김 성주 같은 동무들이 개인들로부터 집 짓는 청부를 맡아 돈을 벌기 위하여 며칠씩 직장을 결근하는 것을 몰랐던가?

벌써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영예와 긍지감에 대하여 교양주어야 했었다.

건설 부문내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 분야에 덜 관심을 돌린 결과 그것은 더욱 한심했다. 어느 한 초급 단체의 민청원들은 14명이나 맹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도에 들어 와서는 맹비를 한번도 물지 않은 동무들까지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금년 상반년도 실적은 계획에 비하여 68%라는 낮은 처지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회의는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고무를 주었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며 청년 건설자들의 로력적 성과와 문화적 휴식에 더욱 많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건설자로서의 영예감을 간직하고 건설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10월 전원회의 보고에서)나는 이 구절을 몇번이나 되 읽었는지 모른다. 우리 민청 단체는 곧 민청원들의 교양 사업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도 10월 전원 회의 문헌을 매개 민청원들에게 정확히 해석 침투시키는 사업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공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 건설 분야에 반당 종파 분자 김 승화가 뿌려 놓은 사상적 여독을 청산하는 투쟁에 청년들을 적극 궐기시키며

2.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조립식 건설과 그의 기계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낡은 보수주의를 퇴치하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할 것,

3. 기본 건설 부문 내 청년들의 도덕적 품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영예감으로 교양하는 동시에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백방으로 높일 것,

이를 위하여 총회로부터 강연, 담화, 군중 문화 사업, 벽보, 소보에 이르기까지의 일체 교양 수단들이 동원되였다.

모든 것은 구체적인 산 재료에 의하여 교양 되였다. 례를 들어 그들에게 조립식 건설의 우월성을 리해시키기 위하여서는 경공업성의 1호 주택 건설에서 간벽 벽체 쌓기를 일체식으로 한다면 3개월이나 걸릴 것을 빠벨 조립식 방법을 도입하여 불과 12일 간에 완수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우리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브록크에 의한 조립식 3층 주택은 재래식 벽돌 건축 방법에 비하여 공사 속도는 2배로 제고되고 로력은 33%, 목재는 68%나 절약되며 또한 그것은 힘든 로동을 경감시키며 매년 우기와 동기의 계절적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등등… 또한 우리는 그들을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교양하기 위하여 우리 기본 건설 부문 청년들이 우리 나라 중공업 및 경공업 발전에 있어서나 도시 재건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과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리 건설 부문 청년들이 담당하여야 할 거대한 력사적 사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 재료로 교양하였다.

또한 기본 건설에서의 필수적 조건인 기계화는 전반적인 기계화가 곤난하다 하드라도 락후한 것으로부터 선진적인 것으로, 소규모적인 것으로부터 대규모적인 것에로 점차로 이행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도 인식시켰다. 이와 같은 진공적인 교양 사업과 더부러 우리는 동맹 조직 사업 분야에서도 대담한 혁신을 이르켰다. 맹원 명부에서 루락되였던 36명의 민청원들을 재 등록하고 그들을 동맹 생활에 망라시켰으며 10명의 분조장들을 다시 선발 배치하고 학습반을 개편하고 4명의 학습 강사를 다시 선발 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완성 직장 내에 새로 민청 단체를 조직하여 주었다. 80명으로 되는 청년 종합 브리가다를 다시 조직해 주었으며 4개의 청년 브리가다와 청년 절약 초소, 청년 발기 초소들을 새로 편성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기계 애호 사상과 그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민청호》운동과 《나의 기대》운동을 강화하고 그의 경험을 일반화시켰다.

10월 전원회의가 있은 후 우리들이 취한 이상과 같은 제반 대책들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은 그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증명되였다.

우선 생산 부문에서 커다란 혁신이 발생되였다. 보조 공장내 정 계두 청년 브리가다원들은 대형 벽채를 생산하는 데 지난 기간 8—10립방을 생산하였다면 현재에 와서는 그의 2배를 생산하게 되였으며 조립 직장 내 청년들은 3층 30세대의 주택 건설에서 내외 벽체를 대형 벽채 및 염화 벽채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대담하게 진행함으로써 매 가옥 당 3,612 공수의 로력과 1만 9천원의 건설 원가를 저하시킬 수 있었다. 서 춘식 브리가다에서는 《오림대 치기》에서 조립식을 적용함으로써 종전 1인당 17.5평방메터를 22평방메터로 높였다.

이것은 조립식 건설에서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청년들의 낡은 보수주의가 점차로 시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산 증거이다. 시공의 기계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한번은 완성 공구의 김 옥자 동무가 나의 앞에 와서 무척 상기된 얼굴로 이런 말을 하였다.

《민청 위원장 동지! 참말로 종전의 일이 부끄럽습니다. 글쎄 기계 분무기로 미장을 하니 종전엔 하루에 140평방씩 하던 것을 지금은 매일 300평방씩 하지 않겠어요》

《그래 지금은 울지 않소》하고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런즉 처녀는 두 뺨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마는 것이였다. 나는 그가 지난번 분무기로 미장을 하면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딴 직장으로 조동시켜 달라고 신소하던 일을 회상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아직 소규모적인 것이긴 하지만 소운반 작업에서도 벨트 뽐쁘야나 따찌카와 같은 그러한 기계화의 공정들이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건설에서의 대담한 조립식 건설에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매개 건설자들의 높은 기술 기능 수준을 요구한다는 청년들의 자각성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80여명의 청년들이 새로 기능자 학교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건설 직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다기능 습득을 위한 투쟁도 강화되였다. 지금유 창운 동무는 연공을 하면서도 벽돌공의 일도 하게 되였으며 김 철수 동무는 자기는 철근공이지만 목공일도 능히 할 수 있노라고 뽐내고 있다.

모든 청년들 속에서 《나의 기대 운동》《민청호》운동의 선풍이 휩쓸고 있으며 기계의 가동률도 제고되고 그의 사고도 근절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설 직장을 사랑하는 기풍이 강화되였다. 글쎄 종전까진 트레스트 일이 부끄럽다하여 자기 동무들 한테 방직 공장에 있노라고 속여 오던 리 춘숙 동무까지 새벽 네시에 출근하여 직장에서 쓸 물을 길어놓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커다란 개변이 아니랴! 심지어 미장공 김 금실 동무는 휴가 기간 중에도 매일 같이 건설장에 다녀가군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 민청 단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회의 이후 트레스트 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일련의 조직적 대책을 강구한 결과 초보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관개 공사장에서의 초급 민청 단체

지난 10월 20일이였다. 이날 4,000여명의 룡강군 청년들은 기양 관개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태성 '저수지 건설장을 향하여 행군하였다. 그들은 달구지에 쌀과 이불과 그릇, 연장들을 싣고 괭가리와 새납들을 울리면서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림 근수 동무가 민청 위원장으로 일하는 룡강군 성암리 240명의 청년들도 섞여 있었다.

다음날 부터 방대한 공사는 시작되였다. 일은 불꽃 튀는 경쟁 속에서 진행되였다. 성암리 청년들과 옥도리, 룡흥리 청년들이 삼각 경쟁을 체결 하였다. 성암리 청년들은 전 공사 구간에서 가장 어려운 기본 언제의 상굴 공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보람찬 성과는 그들 민청 단체의 우수한 사업에 기초한 것이였다.

▲ 당 정책의 부단한 해설과 침투로써……

작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민청원들에게 당의 농업 정책과 이번에 진행되는 기양 관개 공사의 규모, 의의, 전망 등에 대하여 부단히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작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하여 민청 단체는 청년들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가장 생동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그 중요한 형식의 하나로써 그들은 집체적 또는 분조 별의 담화를 리용하였다. 《평남 관개 공사에 기여한 청년들의 업적》이란 제목의 담화는 큰 성과를 가져 왔다.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림 근수 동무는 떠나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담화를 위한 재료를 수집하였다. 그는 지난 기간의 신문들 (로동신문, 민주 청년 등)과 잡지들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뻬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민청 열성자들한테 미리 담화 내용을 자상하게 강의하고 그 후 그들로 하여금 작업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 같은 때에 민청원들 속에서 담화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들은 평남 관개 공사에 대한 담화를 자기들의 실정과 결부시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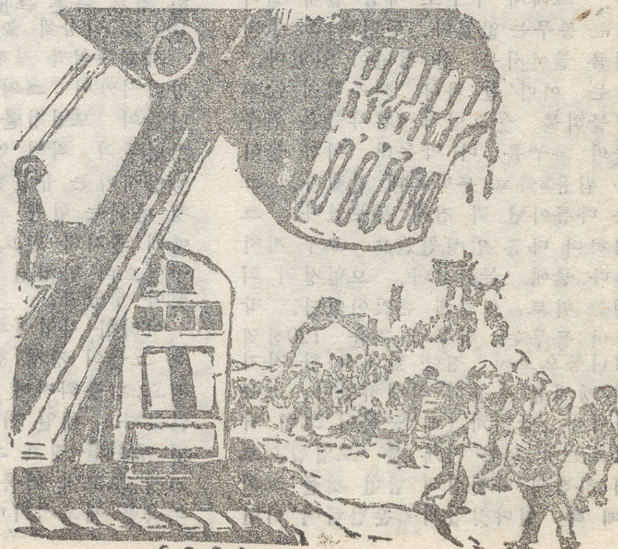
기양 관개 공사의 전망은 실로 크다. 이 공사가 끝나면 1천 5백리의 수로를 거쳐 온천, 증산, 대동, 룡강, 강서, 남포의 근 3만 정보에 달하는 휘넓은 벌판이 풍년의 생명수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 벌판들에서는 지금보다 6만톤의 백옥미가 더 생산되게 되는 것이다.

림 근수 동무와 민청 열성자들은 민청원들 속에서 이렇게 담화하였다.

《동무들! 유구한 력사의 장강—대동강물은 우리의 힘으로 비로소 50메터의 높이에 기여 올라 장차 이 저수지에 1만 6,000 여 정미의 수량으로 들어차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을에서만 하여도 400여 정보의 밭이 논으로 바뀌여 이 물을 받을 것입니다.

동무들! 지난날을 회상해 보십시요! 가물만 들면 그들에겐 기아의 절망이 찬바람처럼 휩쓸어 들던 왜정 때를……

오직 인민들의 생활을 행복에로 꽃피우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 만이 우리 인민들의 오래인 력사적 숙망을 풀어주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장차 여기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전동기, 양수기, 엑쓰까와또르와 불도젤들을 보내줄 것이며 방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터운 배려 속에 우리들이 동양에서도 보기드문 그런 커다란 로언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더욱이 지난 24일 김 일성 수상 동지께서 이곳 작업 현장에 친히찾어오셔 우리들을 고무 격려하여 주신 그날의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지난 시기 평남 관개 공사에서 우리의 벗들이 달성한 업적을 본받아 우리도 로력적 위훈을 세웁시다.》

그들의 잘 준비된 담화는 민청원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저저마다가 가슴 흐뭇이 안겨오는 고향벌의 앞날을 그려보며 담화에 참가 하였다. 민청원 리 진식 동무는 민청 돌격대를 조직하여 야간 작업까지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나섰으며 박 동녀 동무는 자기는 비록 녀성이지만 상굴 작업에서 1일 계획 1립방메터를 300 %로 초과하여 3립방씩 파겠노라고 하면서 전체 민청원들에게 이를 호소하였다. 저저마다가 이에 호응하여 돌격대원으로 탄원해 나섰다. 담화 사업과 함께 그들은 현장 지도를 나온 군당이나 군민청 일'군들을 초빙하여 강연회도 조직하였다.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해방 후 12년 동안 자라온 우리 나라의 농촌》《청년들은 당 정책의 적극적 옹호자이며 실천자이다》 등의 강연회를하였다.

▲ 옳바른 사업 조직

작업에서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동원 사업과 함께 옳바른 조직 사업이 병행되여야 한다.

민청원들의 열성에 기초하여 24개의 민청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그리고 각 돌격대 내에 리내 30명의 열성 맹원들을 적절히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작업에서 모범이 되게 하였으며 각 돌격대 마다에 림시 민청 분조를 조직하고 작업 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분조회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청 단체는 작업에서 민청원들의 창발성을 제고하며 열성자들의 활동을 제고하는데 류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 방법은 전적으로 옳았다.

기본 언제 공사장의 논바닥 토피 제거(土皮除去) 작업 때의 일이다. 논바닥은 그 짝대기를 베끼자 마자 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 그 물에 들어서서 일해야 했다. 그런데 늦가을철 물은 어찌나 차거운지 앙큼한 톱날로 뼈마디를 자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누구도 대뜸 물에 들어서는 동무는 없었다. 이런때 그 물에 넝큼 들어서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이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히물히물 웃으면서 《전사들은 원쑤들의 화구를 다 막는데 이깐 물이 다 뭐유》하고 투박스레 말했다. 그는 다름아닌 리 건식 동무였다. 그리하여 다른 민청원들도 모두 저저마다 물에 들어섰다. 모범성의 의의는 바로 이렇게 큰것이였다. 박 동녀 동무는 하루에 흙을 120짐씩 져나름으로써 집단 앞에서 한 자기의 맹세를 훌륭히 실행하였다. 그는 작업에 납지게 (배'군들이 고기 저나르는데 쓰는 지게)를 도입함으로써 한짐에 다섯삽씩 담던 것을 그의 3배 즉 열다섯삽씩 운반하여 이런 높은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또한 김 동일 동무는 작업에서 한삽 더 뜨기 운동과 한짐 더 지기 운동을 내걸고 박 동녀 동무의 뒤를 따랐다. 그러면 민청 단체는 제때 제때에 벽보와 민청 분조회를 통하여 그들의 모범을 선전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사업을 조직하군 하였다. 실로 작업장에서 좋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사업 방법이였다.

모든 작업조 중에서 상대 농업 협동 조합내 청년들이 언제나 앞섰다. 알고 본 즉 그들은 매개 돌격조별로 도급제를 실시하여 공구 배치에서 굳은 땅과 물은 땅을 선별하여 굳은 땅에는 곡괭이를 더 주고 삽으로도 능히 팔 수 있는 물은 땅에는 삽을 더 주었다. 얼핏 보면 평범한것 같으나 이와 같은 작업 조직은 큰 성과를 나타내였다. 예비는 결코 큰데만 있는 것이 아니였다. 민청 단체가 이 경험을 일반화한 결과 다른 조합들의 작업 성과도 150 % 이상씩 높아졌다.

사회주의적 경쟁에 청년들을 적극 망라시키며 그의 진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모범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청년들의 작업 열의를 계속적으로 앙양시키는 유일한 담보로 된다. 민청 단체는 협동 조합 별 경쟁외에도 매개 돌격대 별로도 경쟁을 체결해 주었으며 민청원 호상 간에도 경쟁을 맺아 주었다.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민청 단체는 그들의 경쟁 결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총화지어 주는 사업을 잊지 않았다. 매일 저녁 분조 별로·개인별 총화를 짓고 그를 게시판에 붙은 경쟁 도표에 기록하여 그들의 경쟁 의욕을 제고시키며 1주일에 한번씩 집행 위원회에서 분조별 총화를 지어 모범을 일반화하고 나타난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는 우수한 작업조들에 우승기와 상품들을 수여 하였다. 작업장에서의 이와 같은 적시적이고도 정확한 총화 사업—그것은 민청원들의 열의와 경쟁 의욕을 견지시킴에 있어서 불가결의 고리로 되는 것이였다. 이와 동시에 민청 단체는 작업 현장에서의 군중 문화 오락 사업도 활발하게 조직 진행하였다.

▲ 일터를 집단의 학교로!

림 근수 동무는 민청원들의 작업장으로 하여금 집단 생활의 학교로, 높은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과 규률의 학교로 되게끔 백방의 관심을 돌렸다.

그는 매개 청년들로 하여금 제정된 작업 규률을 엄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조합의 공동 재산인 삽, 곡괭이 등 로동 공구들과 건설장의 설비물들 즉 국가 재산을 애호하도록 적극 교양하였다. 실로 강한 작업 규률과 로동 공구의 애호는 작업 성과의 주요 담보로 된다.

그는 숙영지의 일상 생활면에서 까지도 민청원들을 고상한 규률성으로 교양함에 주력하였다. 실례로 그들의 일과 생활을 살펴 보자.

아침 여섯시 기상. 모두 넓은 마당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보건 체조를 한다. 다음엔 세수를 하고 숙영지 주변을 청소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한다. 7시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저녁 6시 30분까지 낮 작업을 하는데 그중 한시간의 점심 시간외에도 오전 오후 두차례씩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여 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한시간의 문화 오락 시간을 제정하고 군중 무도와 노래 보급 등을 조직하여 낮 작업의 피로를 풀어 준다. 실로 그들의 일과 생활은 유쾌하고도 명랑한 속에서 시계의 초침처럼 정확하게 흘러간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집단 생활에 있어서 매개인에게 친밀해졌으며 하나의 습관으로 배여들었다.

한편 민청 단체는 숙영지에서의 위생 사업과 군중 규률 확립에 로력하였다. 매일 아침 자기가 든 주인집 뜨락을 깨끗이 청소해 주며 녀성 민청원들로 순차를 조직하여 빨래를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부락 사람들의 일을 도와 주기 위하여 작업을 끝내고 숙영지로 돌아 갈때면 조합의 볏단들을 한짐씩 운반해다 주었으며 로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야간엔 열성자들이 마을 사람들의 탈곡을 도와 주었다.

실로 그들은 8톤 800 키로의 조합 볏단들을 운반해 주었으며 1,180단의 볏단과 58 가마니의 옥수수들을 탈곡하여 주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이웃 로인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여보게! 젊은이! 참말로 그곳 민청원들은 훌륭하오. 내 동무네들 군당 위원장님과 군민청 위원장님께 이런 사연을 편지하리다. 참 고마운 일이라구서!》

× ×

결과 기양 관개 공사장에서의 그들의 작업 성과는 남달리 뛰여 났으며 최초에는 50일로 예견되였던 성암리 담당 구역을 불과 20일로 끝마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게 되였다.

지금 룡강군 성암리 민청 단체의 우수한 사업 경험은 전 건설 공사장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한 희 만

춘건계 총화하면서
一년간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 조합은 논에서 정당 평균 4톤 800키로그람, 밭에서는 정당 평균 3톤 이상의 다수확을 거두였다.

또한 우리 조합은 축산을 비롯한 과수 및 잠업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였는 바 작년까지만하여도 우리 조합에는 소 177두, 돼지 8두 밖에 없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토끼나 닭을 제외하고도 304두의 소와 1,133두의 돼지를 가지게 되였다. 무축 농가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과수 및 잠업 부문에서는 855톤의 과실과 8,608키로그람의 고치를 생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현금 수입을 현저히 높이였다.

이처럼 우리 조합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 로동당의 농업 정책이 옳았으며 그를 적극 실천하기 위한 우리 조합원들의 들끓는 열정과 로력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당의 농업 정책과 우리 조합 앞에 제기된 영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길에서 조합 관리 위원회와 당 단체의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자기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 총화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총화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날 자신들이 거둔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하며 당면한 새해 영농 준비를 잘 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선진 영농 기술은 힘이다

우리 조합은 과수, 잠업, 축산 등 다각적인 농산 부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합 민청원들과 청년들 가운데는 이 부문에 대한 관리 경험과 기술을 소유한 동무들이 극히 적었다. 때문에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선진 영농 기술의 습득과 그의 보급을 제1차적 과업으로 내세웠다.

우리는 종전엔 주로 벼 재배에 대한 기술만을 보급하던 선진 영농 크루쇼크를 조합 실정에 적응하게 한걸음 발전시켜 농촌 청년 학교로 개편하고 과수, 축산, 잠업 부문에 대한 과목을 더 첨가하였다.

그리하여 농촌 청년 학교는 매주 2회씩 운영되였는데 여기에서는 65명의 초, 고중 졸업생들이 들어 있다.

동시에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각 작업반 단위로 영농 기술 보습반도 조직 하였다. 기술 보습반에는 작업반에 망라되여 있는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깊은 리론적 문제 보다도 주로 농산 독본을 교재로 하여 일반적인 영농 기술 상식들을 배운다.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한편 그들의 기술 학습에 방조를 주기 위하여 전문 기술 일'군들을 초빙하여 기술 강연도 종종 조직 하였다.

그런 결과에 한 칠흠, 리 광용, 한 인찬 동무들은 원산 농업 대학 통신 학부 입학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또한 리 배영, 한 복금 동무들을 비롯한 8명의 민청원들은 국가 농업 기수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각각 네과목씩 합격하였다. 그리고 과수 작업반 한 길흠 동무(고중 졸업생)는 적과 작업에서 낡은 적과 방법을 타파하고 새로운 송이 적과 방법을 도입하여 결년(한 해는 잘되고 한해는 안되는 것)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어려운 일의 선두에서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조합의 경제 활동에서 어렵고 힘든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항상 그의 돌격대로 나섰다.

금년중 우리 조합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 과업은 탑동천 제방 공사와 43정보의 과수원 개간 그리고 35정보의 포전 정리 작업이였다.

그중에서도 탑동천 제방 공사는 언땅을 파서 제방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작업이였다. 그러나 언땅도 어름도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굳센 의지를 굴복 시킬 수는 없었다.

조합 민청 단체는 한 돌격대에 70명씩 망라하여 19개의 돌격대를 편성해 가지고 연25,000명의 청년 로력을 동원시켰다. 그 결과 공사 계획 45일간을 20일로 단축 하였다. 이것은 조합 관리 위원회로 하여금 조합 로력을 절약하여 우사, 돈사, 창고 건축에 돌릴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33정보의

논을 완전히 수해로 부터 보호하여 해마다 120톤의 알곡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여 놓았다.

뿐만 아니라 금년 가을에 조합 민청 단체는 로동당의 호소를 받들고 청년들을 고무 추동하여 청년들의 힘으로 뒷산을 개간하였는바 43정보의 과수 면적을 더 확장하였다.

특히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조합 관리 위원회를 도와 무축 농가를 퇴치하기 위한 어려운 사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년초에 우리 조합에는 600여 호의 무축 농가가 있었다. 때문에 조합 관리 위원회는 공동 축산에서 돼지 새끼를 많이 생산하여 무축 농가에 공급해 주는 한편 조합원들 호상 간에 가축을 유무 상통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관리 위원회의 방침에 잘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부터 출발하여 조합 민청 단체는 당 단체의 지도 밑에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 부모를 교양하고 설복해서 가축을 호상 유무 상통하도록 하는 실무적인 대책을 강구 하였다. 그리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자기 부모를 교양하고 설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축을 호상 유무 상통하는 아름다운 미풍을 발양하게 하였다.

이런 결과150 여 호에 달하는 청년들의 가정에서 맨 선참으로 무축 농가를 퇴치하게 되였으며 그럼으로써 전반적인 무축 농가를 퇴치하는 사업에 기여 하였다.

당면한 과제—새해 영농 준비

그러나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지난 기간의 사업에서 적지 않은 결함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조합 민청 단체가 동기간 중심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사회주의적 사상 의식으로 교양하기 위한 계급 교양 사업을 이 시기에 더 한층 강화하는 문제이다.

우리 조합 일부 청년들 가운데에는 조합 재산 즉 역축이나 농기구를 애호하지 않고 되는대로 다룬다든지 또는 공동 로동에서 일은 적게하고 보수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 등 로력과 소유에 대한 비 량심적 태도들이 종종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민청 학습회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특히는 보수주의적 사상과 개인 리기주의, 건달, 공동 재산에 대한 소홀한 태도, 비 문화적인 습관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계급 교양 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 있으며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둘째로 전체 청년들에게 랭상모의 우월성을 더욱 확신시키며 명년에 그것을 더욱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업에 그들을 적극 참가시키는 문제이다.

금년도 우리 조합의 실정은 랭상모의 정당 수확고가 륙상모 보다 1톤이나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보아 만일 우리 조합에서 랭상모를 더 많이 심는다면 더 많은 알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합에서는 금년도의 경험을 살려 명년에는 논 면적의 60%에 랭상모를 심을 계획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논 면적의 60%에 랭상모를 심기 위해서는 우선 2, 000 평의 랭상모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갖추자면 문짝만 해도 24,000개나 들며 방풍목, 나래 및 방풍장에 쓸 새끼들과 기타 여러가지 기자재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동기간에 전부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조합 민청 단체는 지금 이 모든 준비 사업에 청년들을 적극 참가시키는 한편 특히는 모판 설치법과 비배 관리에 대한 기술적 문제들을 보급하는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업은 자급 비료 증산이다.

명년에 우리 조합에서는 3,322톤의 알곡 증산을 예견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21,000톤의 자급 비료가 든다.

그래야만 명년에 논 정당 20톤, 밭 정당 10톤씩 자급 비료를 시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합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소토 생산, 가둑잎 수집, 개똥 줏기 등 동기 자급 비료 생산의 선두에 서도록 적극 조직 동원하고 있다.

우리 민청 단체는 이상과 같은 사업들을 통하여 지난 영농기에 그러하였듯이 새 해의 영농기에도 당의 농업 정책을 승리적으로 실천하여 다수확을 쟁취하는 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자신있게 이끌고 나갈 것이다.

함남 함주군 조양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위원장 김 권 혁



용감성과 강인성의 학교

용감성은 어데서부터?

비에 젖어 무겁게 드리운 개인용 막천안은 여너때 보다는 퍽 침침해 보인다. 그런때 그 속에 반듯이 누워 있는 굴진공 김 학룡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여 있다. 그는 오늘은 종일 비를 맞으면서 전신이 굳어지는 추위도 잊고 현대적 설비를 갖춘 대형 송풍기며 락반 방지기 등 안전 시설들을 자기들의 2호갱에 설치하던 일을 마음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설비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 그 규격으로 보나, 길이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현대적 지하 철도를 방불케 하는 그런 영구적인 전차갱을 여기에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여기서 매년 40—50만 톤의 무연탄을 손쉽게 캐내여 평양과 흥남을 비롯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도 평양—덕천간 렬차를 련결하는 가창—송남간 철도가 느려질 것이며 그것은 또다시 현대적 전기차로 련결되여 우리의 갱내로 줄다름칠 것이다. 문화적인 탄광 도시 송남의 흥성거림은 눈 앞에 벌려질 것이다.

이런 황홀한 생각에 잠긴 그에게는 처음에 이곳으로 왔을 당시의 일이 꿈 같이만 생각되였다.

사실 그때의 형편은 어려웠다. 도착한 송남 땅엔 식당과 침실은 물론 탄광 지도부가 차지할 사무실마저 없었다. 전기 시설과 전화 가설도 새로 끌어 와야 했다. 그러나 젊은 개발자들은 누구나 락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지금엔 아무 것도 없지만 자기들의 손에 의하여 건설될 우리 나라의 첫 청년 탄광 도시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불원간에 골짜기에는 구락부를 련상시키는 훌륭한 식당이 일어 섰고 상점과 리발소와 야장'간이 세워졌다. 마주 선 산 기슭에서는 두개의 전차갱의 굴진을 개시했고, 한편 토목 건축 부문 동무들은 이들에게 경쟁을 호소하고 벽돌을 쌓아 올렸다.

달포동안의 작업에서 자신심을 얻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적으로 완성하기로 된 전차갱과 이곳의 기본 건설을 1년을 앞당겨 수행하려고 결의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당과 정부는 개발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최신식 설비품들을 보내여 준 것이였다.

《당과 정부는 고맙기도 하지, 우리 선조들이 그 언제 이런 크다란 사랑 속에서 살아 보았던가!》 하고

중얼거리는 학룡의 눈에는 불현듯 아버지의 얼굴이 떠 올랐다. 안해와 둘이서 마주 앉는 밥상 앞에서도 탄부들에게 특별히 주는 맛 있는 음식을 들 때면, 또 때 없이 주는 우대물자들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으로 코'등이 시큼해지는 그였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회령 유선 탄광에서 일하였는데 그가 13세 때 버력에 깔려 돌아 가신 것이였다. 학룡은 오늘 자기들을 무한히 행복하게 하여 주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다시금 고마웠고, 그를 위하여 자기 청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영예로운가를 느꼈었다.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전차갱의 입구가 무너졌으니 굴진공들은 나오라!》

이런 뜻하지 않은 련락이 민청 위원회로부터 왔다. 순간 솟으라쳐 일어난 학룡은 별안간 방망이에 주어 맞은것 같이 뒤'통수가 띵하였다. 그의 머리 속에는

《어째서 무너졌을가?》 하는 생각과 함께 무너졌다는 갱구도 갱구지만 오늘 설치한 송풍기며 조명 장치들이 저으기 걱정되였다. 그가 갱구로 뛰여 갔을 때 벌써 거기에는 많은 동무들이 모여 있었다. 갱구는 반남아 무너져가고 있었다. 소낙비에 사태가 나면서 바위'돌이 굴러 내려 갱구 우를 내려 친 것이였다. 송풍기는 아직 괜찮으나 무너져 가고 있는 갱구는 금시 그것을 묻어 버릴 태세였다. 비는 계속 나리고 있다. 마침 든든한 동발'감은 준비되여 있었다. 빨리 그 동발'감을 날라와야 하며 한편으로는 무엇으로든지 기울어지는 갱구에 힘을 받쳐야 한다.

《동무들! 어깨를 디려 댑시다.》

학룡은 기울어지는 동발 밑에 주저 없이 어깨를 받치였다. 그러자 많은 동무들이 그의 뒤를 따라 동발을 부축하였다. 이 틈을 타서 용감한 개발자들은 손가까운데의 동발'감을 날라왔다. 이윽고 그들이 갱구를 복구하였을 때는 날이 훤히 밝아 오고 있었다.

조국에 대한 생각, 당에 대한 사랑! 이 고귀한 정신이야 말로 학룡으로 하여금 남보다 앞서 용감한 행동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로동 속에 다져진 강인성

자고 나면 송남의 면모는 달라진다. 그러나 개발자들의 승리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였다. 굴이 깊어가던 어느날 그들의 앞에는 또다시 새로운 곤난이 나타났다. 기본 굴진에서는 암석이 굳으면 굳을수록 발파에 유리하고 발파가 순조로우면 굴진 속도도 빨랐다. 그런데 별안간 암석은 빛을 감추고 그 속에서 샘물이 솟는 진흙이 나타나며 막장은 질펀하였다. 이런데서는 굴착기가 소용이 없을 뿐더러 고팽이나 끌로도 막장을 팔 수가 없다.

밥 먹을 때까지도 흥얼거려 옆에 동무들을 웃기곤 하던 학룡이게서는 벌써 며칠째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굴에 들어 서면 천반에서는 물이 비오듯 한다. 말 없이 끌로 막장만 파고 있는 그의 옷은 금시 흠빽 젖고 발목은 감탕 바닥에 졸랑 잠긴다. 그래도 그는 거의 감각을 잃은 듯이 이런 것에는 조금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뚫고 나갈가!)

다만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던 그는 한참만에야

《빠이프로 구멍을 쑤시자, 그리고 굴착기로 넓은 구멍을 내서 그 속에 화약을 넣고 매질을 한 다음 폭파한다면 어떨가?》 하는 의견을 동무들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많은 동무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빠이프로 막장 쑤시기부터 시작하였다. 보기와는 다르게 그것은 다른 연장 보다는 퍽 잘 구멍을 뚫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룡이 혼자서 하던 것을 여럿이 힘을 합쳐 디리 밀었다. 빠이프는 픽픽 소리를 내며 쑥쑥 들어 갔다.

빠이프에 의하여 발파할 언저리를 벌의 구멍처럼 쑤셔 놓고 그 다음 굴착기를 디리 대였다. 이윽고 만들어진 발파 구멍에는 이어 남포약을 넣고 매질하였다. 그리고는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밖으로 나왔다. (불발하지나 않을런지?!)

숨이 막힐 듯한 긴장한 순간이 흘렀다. 이윽하여 굴안에서는

《동무들! 만세! 만세 높이 부르며 원쑤의 화점을…》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선참 굴안에 뛰여 들어 간 학룡이의 노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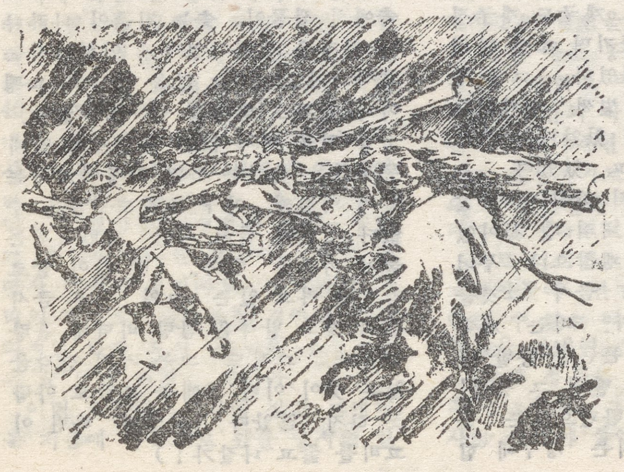
《또 나오기 시작하는군…》

앞에 선 세 사람은 모두 천반에 붙은 진흙'더미를 바삐 뜯어 내며 한마디씩 롱을 던졌다. 그러자 학룡이가

《아니, 언제는 나오지 않았는가! 원쑤들도 빼앗지 못한 노래란 말이요! 에헴!》 하고 시침이를 떼는 바람에 갱내에는 웃음'보가 터졌다. 흙을 만재한 전차는 련속 뒤로 달렸다.

《4년 후에는 탄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게란 말이요. 그때를 생각하면 승리의 노래를 미리 불러 두는 것도 공연한 일은 아니지!》 하고 학룡은 이번에는 굵직한 음성으로 송남 탄광 개발자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자 굴착기를 들고 뒤에 선 다른 동무들도 함께 목청을 돋구었다.

《자, 또 디리 밉시다. 이놈의 진흙'더미가 이기나 우리가 못견디나 어디 봅시다. 우리의 강철 같은 의지는 바로 이렇게 어려운 로동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요.》 하고 그는 또 다시 앞장에 섰다. 드디여 그 며칠 뒤 그들의 앞에는 악착스럽던 진흙이 없어지고 굳은 암맥의 원줄기가 나타났다. 이때 자연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들의 기쁨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였다.

송남은 청춘의 영예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일도 지난 어느날 오후 탄광 민청 열성자들은 90 여 동의 새 문화 주택이 내려다 보이는 청년 아빠트에서 송남의 전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발자》라는 마크가 달려 있는 아치형의 정문 안에서는 전기톱의 요란한 소음이 일순간의 멎음도 없이 골짜기를 울리고 있다. 그리고 재목을 만재한 자동차들은 련속 달려 갔다는 또 다시 줄을 져 달려 온다. 가끔 발파 소리가 들리는 1호갱과 2호갱 앞에서는 자동차들과 경주라도 하듯 벨트 콤베아의 줄을 따라 전차들이 줄다름치고 있다. 야장'간의 소음, 용접봉의 번쩍임, 식당과 상점 앞에 웅성거리는 사람들, 이런 모든 변화는 대낮에도 산'짐승들이 내려 왔다던 석달 전의 이 곳의 면모를 퍼그나 오랜 옛날 일처럼 생각게 한다.

《이 아빠트들을 중심하여 앞으로 수 백동의 아빠트들이 새로 일어 서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택 지구에는 상점들과 목욕탕, 탁아소, 유치원 등 건물들도 일어 서구, 저 정문으로부터 탄광으로 뻗은 사택 마을의 간선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깔릴 것이요.》

민청 위원장은 손을 들어 이쪽 저쪽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탄부들은 래년내로 구락부와 군중 무도장과 각종 경기장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하겠다고 제의하고 있지 않소.》

《문제 없지요. 위원장 동무! 우리에게는 기술자들이 많을 뿐더러 날마다 새 기술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더 닦기도 모르던 동무들이 이제는 제법 단층집 짓는 것쯤은 꿀 먹기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고 학룡이는 자신 만만한 소리로 위원장의 말에 응한다.

마침 이때 우편 통신원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편지들 속에는 《송남 청년 탄광의 용감한 개발자들에게!》 라고 쓴 봉투 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리 수복 고급 중학교에서 온 편지도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쓰고 있었다.

《우리 졸업반 학생들 중에는 형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결심하는 동무들이 많습니다. 부탁할 것은 요즘 형님들이 어떻게 살며 일하고 있는가를 회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 랑독이 끝났을 때 민청 위원장은

《회답 한 장씩 씁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설계들도 첨가해 가지고…》 하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송남은 실로 청춘의 아름다운 꿈을 싣고 광명한 미래에로 나래치고 있다. 오늘날의 송남 청년 탄광 개발자들은 송남의 래일과 함께 온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영원한 축복을 함뿍 받으리라!

조 경 직



젊은 축산 크루쇼크원들

—개천군 승리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민청 단체를 찾아서—

승리 농업 협동 조합 축산 크루쇼크는 1956년 2월 17일 10명의 남녀 민청원으로 조직되였다. 그러나 처음 조직된 축산 크루쇼크는 자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하였다. 조직상 심중한 고려가 없이 다만 농산 작업반에서 일만 잘 하는 동무라면 축산 크루쇼크에 망라하였다. 사람마다 희망이 각이하다는 것은 생각치 않고 농산이나 원예 부문을 희망하는 동무들에게 축산학을 공부하라니 취미가 있을리 없었다. 다음으로 지식의 차이가 심한 데로부터 학습에서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생산과 학습이 일치하지 못한 데로부터 학습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였다.

이와 같은 상태로는 축산 크루쇼크의 사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었다.

조합 초급 민청 단체는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고 크루쇼크를 합리적인 체계로 개편하였다. 개편된 크루쇼크 성원은 남자 7명, 녀자 3명이였다. 지식 정도는 고졸 1명, 중졸 4명, 중퇴 3명, 소졸 2명이였다. 이때부터 축산 크루쇼크원들은 조합 축산 작업반에서 일하게 되였다.

조직된 크루쇼크는 많은 일을 하여야 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금년 내로 조합 내 무축 농가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하여 증식 계획을 달성하고 둘째로 농후 사료의 생산을 확보하며 세째로 새 규모의 축사를 건설함과 동시에 선진 사양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들이였다.

크루쇼크에서는 우선 축사를 건설하는 것부터 착수하여야 하였다.

종전의 돈사는 마을에서 제일 질펀한 곳에 되는대로 지어 놓고 소독도 한번 해주지 않았었다. 그리고 우리에서 나오면 사방이 곡식으로 막히게 생겨 먹었었다. 이런 돈사에서는 선진 사양 관리 기술을 적용할 수도 없었고 증식 계획도 달성하기는 곤난하였다. 그러므로 방목, 사료, 위생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우도록 했다.

새 축사 건설은 부정천 제방 공사와 춘경을 진행하여야 할 바쁜 시기에 동시에 벌려졌다.

초급 민청 단체는 총회에서 새 축사 건설 문제를 취급하였다. 민청원들은 이 건설 사업을 열렬히 지지하여 나섰다. 그들의 손에 의하여 새 축사는 비교적 쉽게 건설되였다. 그들은 조합 주변의 석자재 (돌) 들을 리용하였다.

축산 크루쇼크에서는 지난 시기 월 5회의 크루쇼크 모임을 가졌다. 관리 위원회에서는 모임 시간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한번 모임에서는 2~4 시간씩 학습하였는데 주로 야간에 하였다.

크루쇼크 모임은 선진 사양 관리 기술을 체계있게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기 위하여 학습 단계를 3계단으로 나누었다. 첫계단에서는 선진 사양 관리의 기초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에 크루쇼크원들은 가축의 사양 관리 지침, 축산의 기본 각론들을 학습하였다. 기술 지도자 김 병국 동무는 교재를 충분히 연구하고 내용을 중점적으로 흥미있게 강의하여 크루쇼크원들이 잘 리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크루쇼크실과 축사 안에는 《사료 급여 기준》, 《양돈 관리 일람표》 등 직관물을 부쳐 놓음으로써 기술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강의에서 의문되는 문제는 신천 농전이나 부근 국영 목장에 편지로 문의하여 해답을 받았다.

학습 제2계단은 전공 부문을 연구하는 과정이였다. 기초 학습 과정에서 취미와 소질에 맞는 부문을 선택하여 크루쇼크원들 매 개인이 그 부문을 중심적으로 연구하게 하였다. 전공 부문은 주로 증식, 사료, 수의 방역, 구비의 네 부문으로 나누었다.

오 경환, 김 문수 동무들은 증식 부문을 전공하였다. 그들은 작년 여름 작천 목장에 견학 갔을 때 암퇘지 한마리에서 1년에 40마리의 새끼 돼지를 받았다는 리 복순 로력 영웅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배웠다. 그후부터 돼지

의 사양 관리는 로인들 한테 시키지 않고 이 두 동무가 맡아 하게 하였다. 사양 관리는 어데까지나 선진 사양 관리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풀은 삶아서 먹여야 한다》,《돼지는 북데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 방목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낡은 것을 고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고집 앞에서 물러 서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양 관리 방법의 우월성을 현실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필요한 사료 단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단위 대금 사료를 조리하여 급여하였다.

방목시에는 어떤 풀을 잘 먹는가, 어떤 방목지가 좋은가를 정확히 관찰하였다. 특히 임신돈의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돌렸다. 발육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소화 담백질, 광물질, 비타민 성분이 많은 사료를 잘 조리하여 급여하였다. 낮 사료를 먹이기 전에 일정한 거리를 운동시키고 사료를 먹인 다음에는 30～40분씩 휴식시켰다.

축사 내는 항상 깨끗이 하고 될 수록 건조하게 하였다. 여름에 목욕을 자주 시키고 솔질도 잘 해 주었다. 돼지들은 주인과 친해졌다. 사람이 가면 긁어달라고 등을 돌려 대기도 하였다. 돼지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였다. 돈사 안에는 치료 약품함과 분만 간호함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약품들을 준비하여 놓았다. 작년 여름 12호 종빈이 류행성 감모에 걸렸을 때 김 문수 동무는 즉시 예비 돈사에 이동시켜 근 50일동안 돼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해 주었다. 김 문수 동무 자신이 주사도 놓고 약도 먹였다. 사료도 농후 사료에서 영양 단위가 높은 것으로 급여하고 밤에는 온도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다. 노력의 결과 감모는 완치되고 다른 돼지들 한테 전염도 되지 않았다.

또한 산자성을 높이고 생활력이 강한 새끼 돼지를 얻기 위하여 2종 종부를 실시하였다. 분만이 가까워 오면 축사를 잘 준비하였다. 이런 결과 돼지를 새 축사로 옮겨 온지 불과 4개월 남짓한 어간에 평균 30～40키로씩 증체되였다. 임신돈 한마리에선 최고 13마리를 낳았다.

축산 크루쇼크원들은 2계단 사업을 통하여 선진 사양 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실지 적용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자립적 연구를 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크루쇼크는 조합의 축산업

실정을 연구하고 그의 발전 전망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3계단에서 발표회와 실습을 진행하였다. 발표회와 실습은 크루쇼크원들의 전공 부문별로 월 1회씩 실시하였다. 발표할 문제는 1개월 전에 제시하였다. 크루쇼크원들은 제시된 문제의 연구를 위하여 많은 참고 서적을 보아야 했다. 크루쇼크에는 《가축 사양학》,《선진 양돈 목장의 사업 경험》, 《수의 약리학》 등 37권의 기술 서적이 비치되여 있다. 발표회 및 실습 계획, 연구 발표문, 축산 발전 5개년 전망 기타 많은 직관물들이 붙어 있는 축산 크루쇼크실은 크루쇼크원들의 학습에 충분하였다.

그들은 신문이나 잡지들에서 축산 기술에 관한 내용의 기사들을 반드시 읽고 적어 둔다. 자료 등록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발표를 위하여 준비된 자료들은 일단 같은 전공 부문 동무들과 토의되며 그것을 가지고 실습도 해 본다.

오 경환 동무는 잡지 《선진 농업》 9호를 보는 가운데서 《마늘 피론시트》란 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돼지의 백리'증에 대하여 일상 연구해 왔었다. 얼마 후 자기가 담당한 새끼 돼지 한마리가 백리'증에 걸렸을 때 그는 서슴없이 새끼 돼지를 치료하여 주었다. 즉 그는 마늘 즙에 슬파구와니찡을 섞어서 새끼 돼지에게 먹였다. 그런 결과 새끼 돼지의 백리'증은 떨어졌다.

발표하고 실습한 문제들은 전체 크루쇼크원들의 확고한 소유로 되였다.

3계단에서는 견학도 조직하였는데 이는 발표회와 실습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조합의 축산 크루쇼크는 지난 시기 조합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 크루쇼크는 금년에 들어와 벌써 65마리의 돼지를 생산하여 조합원의 손에 넘겨 주었다. 크루쇼크는 금년말까지 돼지 50마리를 더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이렇게만 되면 조합에 무축 농가는 없어지게 된다. 크루쇼크원들의 손에 의하여 사양된 돼지의 수매액만 하더라도 금년에 117,360원이나 된다.

이 조합의 축산 크루쇼크는 지금까지 총287시간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현재 학습 중인 해부 생리학은 금년내로 끝마치게 된다. 래년도에는 오 경환, 김 문수, 원 양회 등 5명이 축산 기수 시험에 응시케 되며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전 크루쇼크원이 모두 기수 이상의 자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 봉 립

그가 택한 길

민청원 전 영실은 이제 스물한살이다. 그의 가정은 오래전부터 메리야쓰 장사를 하였다. 아버지는 늙으신 분이다. 영실이는 단발머리때도 그러하였거니와 가랑머리로 자라면서 부터는 진짜 장사'군으로 되었다. 개인 장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가슴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 가기가 쉽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옆에 앉아 물건을 팔던 아버지가 어디론가 잠시 자리를 비였을 때, 한 초중 녀학생이 춘추 메리야쓰를 한벌 사려고 왔다. 영실이는 그것을 여직까지 받아온대로 돈을 내라고 하였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와 녀학생의 손에서 메리야쓰를 나꿔 채면서 딸을 보고 노발대발한다.

《너 정신 나갔니? 누가 이걸 그렇게 받으라 글대이!》

녀학생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주저하다가 값을 다시 묻고나서 돈을 치루었다. 그가 돌아간 후였다. 영실이는 아버지가

《너 참 미시리야 미시리! 값도 사람을 보고 부른단 말이다. 녀학생이 혼자 올땐 살림도 괜찮은 집 애이구, 그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걸 왜 눈치채지 못한담? 바보같으니!》

하고 쇠경 경읽듯 투덜투덜거리는 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는 이것 뿐이 아니였다. 영실이가 숙성하면서부터 아버지는 딸을 점포에서 떼여, 이번엔 국영 백화점 문을 지키게 하였다. 영실이는 조반 전에 집을 떠나 대동강을 건는다. 그리하여 국영 제1, 제2 백화점 앞에 가서 문 열기를 기다린다. 자기와 같은 임무를 맡고 여러 장마당 점포들에서 온 아주머니, 처녀들이 수두룩이 모여든다. 문이 열리기 바쁘게 그들은 앞을 다투며 들어가 목적했던 매표대 앞으로 달려간다.

영실이도 그렇지만 딴 사람들도 어제 수입 몽내의가 입하되여 오늘부터 판매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반 시민들이 사기 전에 개미떼처럼 모여들어 그것들을 전매하는 것이다. 영실이는 한벌 사가지고 나왔다간 다시 들어가 또 한벌을 사고, 이렇게 해서 그는 하루 아침에 여나문벌까지 산 일이 있었다. 작년 여름에 이렇게 산 것을 겨울에 점포에 내다가 국정 가격보다 서너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였었다.

이런 영실이가 많은 사람들의 증오에 찬 눈초리를 받을 것은 당연하였다. 국영 백화점에 자주 드나드는 고객들은 영실이의 얼굴을 벌써 익히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영실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를 쫓아가서 매표원에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영실이가 폭리 행위를 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날이면 영실이는 아버지한테 욕사발을 얻어 먹었다. 아버지는 매점 행위가 반인민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딸의 《수단》이 서투르다는 것을 타박하였던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모순이 커 갔다. 영실이는 자기와 같이 그전날 학교에 다니다가 지금은 어느 직장이나 건설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남을 속이지 않고 또 남의 눈총을 받지 않고서도 잘 살고 있는 그들, 밝은 세상에서 밝은 얼굴로 웃으며 살아가는 그들이야 말로 얼마나 기쁘겠는가! 돈이 다 뭐 말라 죽은게냐? 영실이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는지 리해하기 어려웠다.

하기는 모리 간상배 노릇을 하는 탓으로 영실이네 집에선 일반 시민들에 비할바 없이 풍요하게 지낸다. 아버지는 술을 끊는 날이 없다. 영실이도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지만 점심땐 점포에 앉아 개장국이나 국수같은 것을 매일처럼 받아다 먹는다. 그러나 이런데 소용되는 돈보다도 국가 상품을 전매하기 위한데 쓰이는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돈은 마치 빈대가 사람의 피를 빨아 먹고 새끼를 치고 치듯이 전매에 전매 행위를 거듭 하면서 더욱더 뻘어 간다. 이런 식으로 뻘어 가는 돈이 벌써 아버지와의 모순을 깨닫고 있는 영실이의 얼굴에 웃음을 가져올리 만무였다.



영실이는 가두 민청 학습회에 남처럼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가하는 때도 없지는 않았다. 학습회 때면 그의 머리엔 깊은 고민이 더 생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영실이는 이때마다 딴 동무들에 비해 자기가 형편 없이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체험하군 하였던 것이다.

가두 민청에 망라된 이러 저러한 소시민 청년들이 근로 청년들처럼 그렇게 세상일에 밝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영실이는 생산 협동 조합이나 판매 협동 조합 그리고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들어 있는 동무들보다 천하 지 차이로 모든 것을 모른다. 그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습회 때에야 비로소 눈이 뜨이는것 같았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제 사변들에 대해서도 그는 아는 것이 적었다. 그리하여 학습회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면 이불 밑에서 몸을 뒤치락거리며 잠못드는 때가 많았다. 아직 자기가 나아갈 길을 뚜렷이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지금 상태로서는 자기의 청춘이 그대로 썩고 말 것이라는 믿음만은 생겼다. 이때로부터 영실이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기 위하여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 더 자주 학습회에 출석하였다. 그럴수록 그는 자기의 앞길이 확연히 내다 보이는것 같았다.

영실이의 아버지는 신병으로 눕게 되였다. 점포는 영실이 혼자 도맡다 싶이 되였다. 아버지는 현대 의술의 기술 수준을 믿지않는 완고한 분이다. 그는 개인상들한테 부탁하여 비싼 약으로만 사다 썼으나 병은 차도가 없었다. 위급에 처하자 영실이는 인민 병원에 련락하였다. 병원에선 구급차로 아버지를 실어 갔다. 그리고 한 보름 후에 차까지 태워서 퇴원시켜 주었다.

영실이는 아버지가 기반이나 전매의 길을 강요하던 때의 일을 날날이 생각할 때 서름이 가슴에 북받친다. 그리고 그런 한개 모리 간상배의 신병을, 정말 사람에 대한 높은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준

나라의 처사를 생각할 때 고마움으로 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영실이는 서름과 고마움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으로 자기와 아버지의 지난날을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였다.

이때 동구역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협동 조합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영실이는 여기에 자기네가 선참 들어갈 것을 아버지와 의논하였다. 아버지는 반대하였다. 한번 작정한 영실이의 마음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장사를 하여도 법을 위반함이 없이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할것이지 간상배 행위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밝은 세상으로 뛰여 들어가겠다고 굳은 의사를 표명하였다. 딸없이 아버지는 폭리를 추구하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이였다. 영실이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벗어나더라도 얼마든지 자립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리하여 구역 민청의 도움으로 그가 어느 건설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는 그에게 협동 조합에 들자고 하였다. 아버지는 시장안의 여러 개인상들과 심각한 의논 밑에 조합 조직에 참가할 것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래서 영실이가 《동구 의류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든 것은 1년전 일이였다. 그는 그후 조합의 판매원으로서 고객들을 속이지 않고 거뜬한 마음으로 일하였다.

조합에 들어온 이후 그에게 제일 기쁜 것은 민청 학습회에 빼짓하게 참가하는 일이였다. 종전엔 그렇지 못했었다.

아버지가 자꾸 말렸으며 어느때 한번은 학습회에서 늦게 돌아왔다고 하여 술이 얼근이 취한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었다. 《이년! 돈이 있어야 시집도 좋은데 가구,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단 말이다. 그까짓 정치는 배워 멀해! 흥! 다시 가보라?》

그러나 사정은 아버지의 말과는 달랐다. 학습회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부터 영실이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조차 모르고 지내온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알게 되였고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재미도 대단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자기같은 사람두 나라에서 내세운 그런 상업의 길을 따라야만 조국통일도 하루 바삐 될수 있다는 것을 느끼였다. 이렇게 되면서 영실이는 조합의 열성자로 자라났다.

조합에 들어와 처음엔 몰랐지만 날이 갈수록 그에게는 이러저러한 의심을 가지는 문제들이 생겼다. 의심에 맨처음 걸어 들린 사람이 기순 어머니였다. 그는 이전에 일용 잡화상을 하였는데 조합에 딴 사람들 보다 좀 늦게 들어 왔다. 하루는 무슨 조합일로 영실이가 그의 집으로 가게 되였다. 영실이는 저윽이 놀랬다. 어느한 중년 사나이가 그집에서 여러가지 일용 잡화들을 날라가고 있는 것이다.

알고보니 기순 어머니는 겉으로는 조합 생활을 하면서 속으로는 딴 궁궁이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즉 조합에 들면 세금도 적고하니 그는 조합에 들었다.

그리고 내막적으로는 자기네 친척을 시켜 장사를 계속하게 하며 역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였다.

영실이는 기순 어머니가 그 어떤 모리 간상배들 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보였다. 민청 학습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하자 많은 동무들이 그를 보고 그것을 폭로하고 기순 어머니의 간상배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영실이는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 짐을 느끼였다. 그는 조합원 회의때 그것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회의에서는 당사자에게 단단한 경고가 있었고 그의 물건을 조합이 사들였다. 이런 과정을 지나 그는 지금 농민 시장 안에 있는 공업품 상점 판매원으로 되었다. 조합은 그가 이 길을 요구하였을 때 서슴없이 그를 도와 그리로 보내기에 힘을 썼던 것이다.

영실이는 지금 당당한 국가 일'군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구역 민청이나 시민청에서 자기들의 무슨 회의가 있을 때면 자기와 같은 행로를 지나온 개인 상인 청년들을 만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개인때보다 판매 협동 조합때가, 판매 협동 조합때보다 생산 판매 협동 조합때가 이보다 생산 협동 조합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더 으젓한가를 즐겁게 속삭인다.

영실이는 얼마전에 신문에서 개인 상공업가들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할데 대한 내각 결정 제 104호를 보았다.

이 결정이야말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상업 정책이 옳으며 그를 따름으로서만 지난날의 자기 아버지나 자기와 같은 개인 상공업자들에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금 느끼였다.

송 선 경

《전쟁 상인의 망상》





《쏘련의 인공 위성 앞에서 미쳐 날뛰는 전쟁 상인들》

기술의 힘

금년도 우리 직장에 부과된 방대한 생산 과제 (수소 생산)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전해 직장의 유일한 설비인 수은 정류기의 대당 생산 능률을 높이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였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그를 다루는 청년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직장 민청 단체에서는 청년들 속에서 기술 교양 사업을 강화하라는 로동당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들의 기술 수준을 가일층 높이기 위한 제반 조직적 대책을 취하였다. 우리는 우선 직맹 단체를 도와 로동 청년들의 기술 교양 체계를 재 편성하는 사업부터 착수하였다.

민청 단체는 그들의 기능 급수와 일반 지식 정도를 사전에 료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능 강좌와 초급 기술 학습반을 조직하였다.

기능 강좌에는 국해 정도와 인민학교 졸업 정도의 무기능공 15명을 망라시켰다.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되는 이 기능 강좌에서는 어려운 리론 문제를 배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입 차단기, 주변압기, 고속도 차단기 등 기계의 실물들을 놓고 그의 구조, 명칭, 작용들에 대하여 료해시켰다. 그리고 매개 참가자들에게 실제 동작을 통하여 그를 다루는 것을 숙련시켰다.

초급 기술 학습반은 초중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기능공들로 조직하였다.

11명의 민청원들이 작업이 끝나면 학습 장소에로 모여 들어 수학, 물리책들을 비롯하여 《전기 리론의 기초》라고 씌인 노트들을 펼쳐 놓고 공부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앞서수은 정류기의 원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학습은 시작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부닥치는 곤난과 애로를 뚫고 나가야만 했다. 그중에서도 제일 걱정거리로 된 것은 일부 동무들이 자기는 기술 학교에 가지않고서는 도저히 기술을 배울 수 없다고 여기는 낡은 편견이였다. 실례로 민청원 황 은순 동무가 그랬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기술을 배우다니요.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겠어요》하고 아예 학습에 참가하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들의 이런 낡은 생각을 고쳐 주며 그들로 하여금 오늘과 같은 좋은 사회 제도 밑에서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방조해 주어야 했다. 이리하여 민청 단체는 출판물에 소개된 일하면서 자습하여 기사, 기수로 된 로동 청년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하여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날 저녁 15년 동안의 로동 생활을 통하여 우수한 기능자로 자라난 우리 직장의 리

도순 동무를 구락부에 모셔 다가 이야기 모임을 조직하였다. 그는 왜정때 자기가 기술을 배우려고 놈들의 눈을 피하여 가며 기술 책을 얻어 보다가 들키서 울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이며 그래서 책을 기사놈한테 들고 갔다가 《로동자가 무슨 기술을 배우겠냐》고 호된 핀잔을 받은 이야기 등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이젠 벼록 나이먹었지만 장차 기사로 되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배우겠노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를 듣는 모든 민청원들의 얼굴엔 저으기 감동의 빛이 어렸다. 이날 저녁 그렇게도 락담하던 황 은순 동무까지도 자기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이때까지의 내 생각이 옳지 않았어, 나도 이제부턴 적극적으로 배울래!》

한편 민청 단체는 매개인의 수준을 잘 고려하여 기능 수준이 어린 동무들의 학습을 방조해 주도록 하는 개별 담당제 사업을 조직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의 진행 정형을 수시로 총화해 주고 모범을 찬양해 주는 사업을 강화한 결과 배워 주는 사람들의 열성과 책임성이 점점 제고 되였다. 그들은 작업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막론하고 자기가 맡은 동무를 부지런히 도와 교양망에서 배운 문제들을 다시 배워 주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배우려는 사람의 열성도 스스로 더욱 높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황 은순 동무만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완전히 학습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조그만한 수첩에 기계의 구조, 명칭, 작용등을 베껴들고 집에 가서 가사일을 하거나 잠을 자는 잠자리에서 까지도 펼쳐 보군 하였다. 실로 그의 열성은 대단하였다.

이렇게 하여 민청원들의 학습 의욕은 점차로 제고 되였다.

다음으로 민청 단체는 그들에게 다양한 학습 방법을 조직해 주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였던 것은 《질의 응답판》이였다. 직장 게시판에는 정상적으로 이런 종이 쪼박들이 나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조 철형 동무! 고속도 차단기의 구조에 대하여 대답해 보시오》

《임 계연 동무! 동무는 래일 아침까지 수은 정류기의 안전 조작법에 대하여 여기에 써 붙여놓으시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엔 으례히 해당한 답안들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나붙군 하였다. 학습 지도자는 그 답안들에 점수를 매겨 주군 하였다. 이것은 매우 민청원들의 흥미를 끌었는데 모두가 이에 경쟁적으로 참가하게끔 되였다.

민청 단체는 기술 교양망에서 리용할 수 있도록 《수은 정류기의 구조도》, 《고속도 차단기 해로》 등 수십종의 직관물들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으며 김책 공대 전기 공학부를 졸업한 젊은 기사 박 세송 동무를 비롯한 공장 기술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기술 강연회도 때때로 조직하였다.

그러나 민청 단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주되는 관심을 돌린 것은 그들이 교양망에서 배운 리론들을 실제 생산 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문제였다.

우수한 동무들을 선발하여 작업 현장에서 수은 정류기의 안전 조작법에 대하여 시범 동작도 시켜 보고 어떻게 하면 배운 리론과 결합시켜 설비 리용률을 더욱 높이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결정 정신을 받들고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더 많이 탐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하도록 1인 1건 창의 고안 운동도 강화하였다.

그러면서 민청 단체는 매개 민청원들의 기술 학습 정형을 수시로 집행 위원회와 총회들에서 총화하고 우수한 동무들을 벽보나 공장 신문에 크게 실려 그의 모범과 경험을 널리 선전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 대책들은 민청원들의 기능 수준을 현저히 장성시켰다. 지난 3.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4급에서 5급으로 된 동무가 15명, 5급에서 6급으로 된 동무가 10명, 6급에서 7급으로 장성된 동무가 10명, 7급에서 8급으로 된 동무가 3명이였다. 또한 17명의 무기능공이 기능공으로 장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여 기술을 배운 동무들 중에서는 금년도 생산 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창의 고안까지 여러건 나왔다. 지난 그 어느날 실로 놀랄만한 소식이 직장 안에 퍼졌다.

정규 기술 학교에 다니지 않고서는 기술을 배울 수 없다고 락담하던 수리공 황 은순 동무가 기술 학습망에 망라된지 불과 두달만에 자기의 기능 급수를 한급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류기의 수리에 사용하는 공구 연마기를 새로 만들어 내여 정류기의 수리 작업에서 종전까지 열 공수 걸리던 일을 단 혼자서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후 황 은순 동무는 일하며 배우는 기술의 힘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더욱 절실히 깨닫고 학습에 일층 분발하게 되였다.

그 밖에도 운전공 김 동민 동무는 야간에 불시로 정전되였을 때 전해로의 전압을 리용하여 여섯개의 전등을 조명함으로써 기계의 조작에 지장이 없게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창의 고안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가지 기술적 혁신들이 생기고 기능자들의 대렬이 장성함에 따라 우리 직장의 기본 설비인 수은 정류기의 대당 출력은 종전의 2,800키로왓트로부터 3.4분기 이후에는 일약 3,050키로왓트로 제고되였다. 이것은 정말로 놀랠만한 성과였었다. 그리하여 금년 중 우리 직장에 부과된 수소 생산 과제는 지난 10월 말까지 훌륭히 완수되였으며 년말까지는 그를 122%나 초과하게 되였다. 원인은 모두다 한사람같이 자기들의 기능 수준을 높여 정류기의 대당출력을 높인 때문이였다.

기술의 힘—그것은 참말로 크고도 위대한 것이였다.

본궁 화학 공장 전해 직장 민청 초급 단체

위원 리 병 걸

종파란 어떤 것인가?

리 석 빈

종파란 당내에 있으면서 당의 로선과 당 중앙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협소한 리익을 위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그런 반당적 분자들의 그루빠를 말한다. 이러한 종파 분자들의 행동은 《지방주의적 경향이 있는 분자들과 또는 지위 불만, 당에서 처벌 받은 분자들을 규합하여 아무 근거 없이 무원칙하게 "당에서 너를 신임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으로써 성분이 비교적 순결치 못한 당원들을 유혹 또는 개인 감정으로 끌어 당기는 현상으로써 표현》(김 일성 선집 4권)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혁명적 운동에서 변절한 자들까지 자기 주위에 묶어 가지고는 《당과 혹은 정권 기관들에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과거 "혁명 생활"에서 깨끗치 못한 것을 서로 엄폐하여 주며 허장 성세하여 서로 춰주며 자기들끼리 싸고 돌며 일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간부들 사이에 의견 차이 혹은 화목치 못한 점을 리용하여 리간하며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으려고 애쓰고》(김 일성 선집 제 4권)있다.

이러한 추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이자들은 당 로선과 당 중앙을 겉으로는 받들고 표면상으로는 혁명에 참가하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혁명을 말아 먹기 위한 파괴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행위들은 경우에 따라서 가지 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되는 형태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로동 계급의 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적대적 계급의 사상 즉 개인 영웅주의, 직위 탐욕 등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며 결국 이는 당과 인민을 배반하는 적들의 리용물로, 간첩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적 행동이나 경향은 그것이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당의 통일과 혁명을 말아 먹으려는 범죄적 행동으로 단호히 규탄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사실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의 력사가 뚜렷하게 보여준다.

1920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대렬 내에 발생하였고 우세하였던 종파들은 대중 운동에 심중한 해독을 주었으며 공산당을 조직된 력량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하였으며 끝내는 1928년에 해산되게 하였다.

종파 분자들은 당 창건을 위한 첫 시기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투쟁할 대신에 《화요파》요, 《상해파》요, 또는 《북풍회》요, 《서울파》요, 해가지고 맑스—레닌주의에 립각한 당 건설 원칙과는 인연이 없는 탐위적인 파벌 투쟁을 일삼았다.

이리하여 당시 《화요파》를 위시하여 《상해파》 《북풍회》를 한편으로 하고 《서울파》를 다른 편으로 한 파벌들은 서로 조선 공산당을 자기 파 중심으로 조직하려고 날뛰였다. 그러다가 1925년에 《화요파》의 소위 《헤게모니》하에서 《서울파》를 제외하고 당이 조직되였다. 그러나 이는 《화요파》를 위시한 《상해파》 《북풍회》 등 종파들의 형식적 결합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당이 창건된 이후에 있어서도 당내 또는 당외에서 종파 투쟁은 극복되지 못하고 도리여 극심해졌다. 즉 당내에서는 《화요파》 《상해파》 《북풍회》등 세 파가 서로 자기들의 전통과 리익을 당 우에 내 세우면서 격렬한 파벌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당외에서는 《서울파》가 별개로 《고려 공산 동맹》을 조직하고 파벌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 후 당내 파벌 투쟁은 새로 형성된 《엠, 엘파》와 《서울파》의 구파와 《상해파》가 합하여 형성된 《서상파》의 출현으로 더욱더 심하였다. 각파들은 어떤 조직상, 정책상 의견 차이로써가 아니라 무원칙한 자리 다툼을 위하여 서로 싸움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에 폭행을 감행하거나 지어는 일제 경찰들에게 다른 파의 내막과 비밀을 밀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각종 종파 분자들의 암해 활동은 공산주의 운동과 당내의 의지의 일치성을 파괴시키며 당내 강철같은 규률을 물란하게 하며 당 내부 생활을 적들 앞에 로출시킴으로써 결국 당 자체를 적의 손에 넘겨 줄 뿐만 아니라 종파주의자들 자체가 나종에는 적의 정탐배로 전락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 왔다. 이와같이 해방전 우리 나라 로동 운동 내에 나타났던 종파주의는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으며 유해로운 종파적인 여독을 남겨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후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종파 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조류와 랭혹한 투쟁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직후에 벌써 당 창건을 반대한 종파주의, 지방 할거주의자들, 미제의 《방조》하에 《독립》을 달성하려는 우경 투항 분자들과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좌경 기회주의 편향들을 반대하는 투쟁 과정에서 우리 당은 창건되였으며 단련되였다. 더욱이 전쟁의 곤난한 시기와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당과 혁명을 반대하여 진출한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들과 허 가이, 박 일우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과정을 통하여 전당은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결속되였으며 전체 당원들의 당성은 더욱 제고 되였다.

이와같이 당이 당내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대렬의 강철같은 단결을 위하여 종파 분자들과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한 것은 극히 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6년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 비판된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김 승화, 리 상조, 고 봉기 등 반당적 종파 분자들은 뻔뻔스럽게도 《종파의 유익설》을 내 놓으면서 자기들의 추악한 정체를 들어 내였다.

이자들은 모든 종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혁명 과업 수행에서의 당의 어려운 시기에 머리를 쳐들고 나타났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로동 운동의 시련의 시기 즉 국제 반동들이 웽그리야에서 반혁명 음모를 감행하고 있었던 때이며 국내적으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에 의한 폭동을 기도하던 그런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 당의 지도하에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다. 바로 이런 시기에 최 창익, 박 창옥 등 반당적 종파 분자들은 당을 파괴하고 그 우에 올라 서려고 날뛰였던 것이다. 이 종파 분자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음흉한 야욕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어

떠한 악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는바 그들은 단순히 당을 반대하여 진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 거구를 전복시키려고까지 획책하였었다.

이자들은 가혹한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 인민 생활이 아직 곤난한 형편에 있는 틈을 리용해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의 시책들과 성과들을 부정함으로써 당의 정책을 비방 중상하고 대중을 기만하여 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당과 인민이 피 땀으로 복구 건설을 하고 있는 시기에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의 정당한 정책을 파탄시키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려고 악랄한 행동을 하였다. 한가지 실례만 들더라도 반당 종파 분자 윤 공흠은 당의 상업 정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하여 고무신, 편직물 등 중에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부의 것들로만 우정 골라서 로사용 물자로 강제 배급케 하는 범죄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8월 전원회의에서 폭로 비판된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과 형제 당 간에 리간을 조성하려 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면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당한 제반 조치에 대하여 《민족주의》에로 나간다고 중상하였다. 극도로 타락한 이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동지와 원쑤를 분간할 능력까지 상실하였으며 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가진 악랄한 방법을 다하려 하였다.

이자들은 비렬한 량면주의자로 떨어지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당 로선과 당 중앙을 겉으로는 받드는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딴 작란을 하는데 몰두하였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자기와 자기 파의 존재를 위하여 온갖 음모적, 외교적 수법으로 불평 분자들과 당성이 해이된 자들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였다. 이러는 반면에 견실한 당원들을 배척함으로써 자기《지반》을 닦으려 하였으며 자기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악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데 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박 헌영, 리 승엽 등 간첩 암해 분자들이 우리 나라가 전쟁의 시련을 겪던 시기를 리용하여 당과 정부를 무장 구데타의 방법으로 전복하려던 시도와 꼭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이 오래전부터 책동하던 반당 음모 행위는 철석같이 강화되고 단결된 우리 당 앞에 폭로 되고 말았다.

오늘 이와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 대렬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일층 높여야 한다는 것을 교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는 어떠한 종파적 경향도 없다거나 앞으로 전혀 종파 분자들의 책동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소부르죠아적 및 부르죠아적 사상을 낳을 수 있는 경제적 요소가 아직 남아 있으며 더욱이 남북이 갈라져 있고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원쑤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대렬 내에 온갖 불순한 요소들이 침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렬을 더욱 강화하고 계속 혁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강한 반 종파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우리의 혁명 참모부인 로동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야하며 과거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로동당의 정책을 적극 지지 옹호하며 실천하여야 한다.

미제는 물러가라!





인민 경제 대학 경제 지리학 강좌
주 광 일

산림이란 림목과, 토양, 공기, 식물, 동물 및 곤충 등 모든 주위 환경의 총결합체를 말한다.

산림은 그의 주산물인 목재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생산품 즉 종자, 과실, 열매, 약초와 산업 및 건축 기타의 제품을 위한 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산림은 제지 및 인견용 펄프 공업, 방부재 및 염색 원료로서의 탄닌 제조 공업, 도료 제조 공업, 유지 제조 공업, 알콜 및 기타 약품 제조 공업 등 목재, 화학 공업 발전에 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산림은 기온과 습도를 조절하고 수원을 함양함으로써 관개 및 수력 발전용 물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방풍림과 호전림으로써 경작지를 보호하며 토사 류출을 방지하고 풍수해와 한재를 방지한다.

이렇게 산림은 인민 경제 각 부문을 위하여 극히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김 일성 원수는《산림이 없으면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산림은 인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산림은 토목, 건축, 영농, 기후, 풍토, 미관상 반드시 있어야 할 자원입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는 산림 자원이 풍부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전 국토의 73%가 산림 면적으로서 세계에서도 산림 면적이 많은 나라들 중의 하나다. (제 7위)즉 우리 나라의 총 면적은 전 세계 륙지 면적의 0.15%를 차지하나 산림 면적에서는 전 세계의 0.54%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의 산림 면적은 약 1,600만 정보인데 그중 58.6%는 북반부에 있고 나머지 41.4%가 남반부에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그 기후적 조건으로 보아 다양한 수종(樹種)이 무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식물 생산에 유리한 기후적 조건은 산림 축적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1942년에 전 조선의 산림 축적은 2억 2,400여만m^2였는데 그중 침엽수는 64.5%이고 활엽수는 35.5%였다. 우리 나라의 수많은 수종들 중에서 성숙림을 이루고 있으며 림산업적으로 보아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소나무, 이깔나무, 분비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침엽수와 참나무류, 가래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피나무, 사스레나무, 박달나무, 돌배나무 및 대(竹)등의 활엽수이다.

림산업적 의의를 가지는 산림 축적은 그 수직 고도로 보아 해발 1,400m 이상의 산 지대에 집중되여 있는바 1,400m~1,800m까지의 산지대의 70%, 1800m이상의 지역에 20%가 있다. 우리 나라 산림 축적의 62%는 북반부에 있는데 특히 성숙림 축적의 대부분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상류 지대인 량강도와 함경 북도의 고지대로부터 자강도와 대동강 상류 지대인 평안 남도의 동북부 산 지대에 이르는 지대에 집중되여 있다.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밀림 지대이며 적지 않은 지대에 처녀림이 있다. 그 외의 지역으로서는 강원도의 태백 산맥 지대와 소백 산맥의 지리산 일대 등에서 비교적 무성한 산림을 찾아 볼 수 있다.

북반부에서 황해남, 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6도에서의 산림 축적 중 수종별로 보면 침엽수가 54.4%, 활엽수가 45.6%이며 총산림 축적 중 이깔나무 20.4%, 소나무 16.9%, 전 나무류 4.4%, 잣나무 1%, 기타 침엽수류 11.4%, 참나무 19.7%, 피나무 4.7%, 사스레나무 4.6%, 기타 활엽수 16.6%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가지는 넓은 산림 면적과 산림 생장의 유리한 자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산림은 아직도 빈약하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장기간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략탈적 채벌, 미제에 의하여 강요 당한 전쟁과 그리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계속 강점의 결과이다. 일제는 우리의 산림을 람벌만 하고 산림의 보호 육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나라의 구릉성 산림은 물론 산악림의 대부분이 황폐화되였으며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지역 같은 데서도 벌채하기 쉬운 하천로와 도로 부근의 모든 산림이 황폐화되였다. 일제 통치 기

간 1910~1942년에 이르는 동안 조선의 산림 축적은 1910년에 비하여 63.7%로 감소되였다. 이리하여 본래 무성하였던 우리 나라 산림 면적 중 약 $\frac{1}{3}$은 무림 목지(無林木地) 또는 산생지(散生地)로 되여 버렸으며 많은 산들이 대머리 산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지난 전쟁 과정에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산림 축적은 더욱 감소, 축소되였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통치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일제시 이상으로 계속 산림이 람벌되고 황폐화되고 있는바 이것은 산림 축적을 매우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및 기타 부문에 많은 재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따라서 일제와 미제에 의하여 황폐된 우리 나라의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무성하게 하는 것은 산림 축적을 증대시켜 더 많은 목재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황폐된 산림 자원을 복구 확장하기 위하여 그 언제나 산림 보호 및 조림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오늘날 그것은 더욱 기세 높은 전 인민적 운동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계획 밑에 산림을 개발하여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순응 시키기 위한 투쟁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목 생산

공화국 북반부에서 원목 생산의 조직은 기계화의 방법으로 그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동시에 산림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하며 후계림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그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본적 원목 생산 기지는 량강도, 자강도 및 함경 북도이다. 이 3도에서 북반부 전체 생산의 약 86% (1955년 현재)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량강도에서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이 도에서만 약 48%를 차지한다. 량강도의 여러 지방은 전 공화국적으로 가장 큰 벌채 기지이다. 자강도는 량강도 다음으로 원목 생산이 많은 지역 (1955년 현재 20.8%)인바 여기에는 여러곳에 큰 림산 사업소가 있다.

다음으로 함경 북도는 17%의 원목 생산을 차지한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지금 약 170개소의 림산 사업소가 있고 벌채 현장은 약 70개소에 달한다. 이상의 벌채 기지들에서는 인민 경제 각분야에서 요구되는 원목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바 1956년도에는 1949년도에 비하여 160% 즉 260

만M^3의 원목을 생산하였다.

제재 및 가공 용재는 건축 용재로서 대량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철도용 침목과 목재 가공 생산 원료로 막대하게 소요된다. 목재 가공품도 건재 또는 기타 자재 및 일용 필수품으로 많이 리용된다. 특히 목재 가공 생산은 목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근본 대책의 하나로 된다.

8.15 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목재 가공업이 매우 미약하였으나 8.15 후엔 우리의 인민 정권이 새로운 가공 공장들을 건설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제재 공업의 지리적 배치는 일반적으로 원목 기재 기지에 견인되지만 일부는 제재 수요지에도 견인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제재업의 기본적인 부분은 역시 원목 생산 기지인 량강도, 자강도 및 함경 북도 등에 배치되여 있지만 소비 지구에도 적지 않게 배치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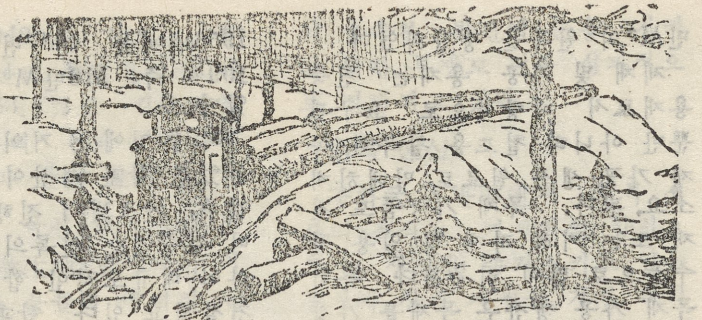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위연 제재 공장을 비롯하여 량강도와 함경 북도의 여러 제재 공장은 원지 가까이에 있으며 함경 북도와 함경 남도의 여러 제재 공장은 수상로 또는 철도에 의하여 목재를 대량 집산하기 쉽고 소비지에 보다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제재 기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1956년에는 1947년에 비하여 199% 즉 110만M^3를 제재하였다.

8.15 전에는 거의 생산될 수 없었던 합판 생산이 오가산과 길주, 만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길주에는 산록의 원료에 의하여 대규모적인 합판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합판의 기본적인 원료로는 봇나무를 비롯한 활엽수가 적당하다. 합판은 그 두터이에 따라 3*mm*, 5*mm*, 7mm로 구분된다. 1m^3의 합판을 생산 하기 위해서는 2.5m^3의 목재가 필요하다. 이리하여 합판 공장은 원료 기지인 활엽수 지대에 견인된다. 길주는 량강도와 함경 북도 일대의 활엽수를 리용하기 쉬운 교통상 수운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합판 공장을 설치하였다.

목재 가공업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논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이 목재 가공품과 항상 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

이리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에서 목재를 가공하여 책상, 의자, 가구, 일용 필수품들을 만드는 가공 공장은 물론 강계와 자강도의 전천에는 성냥 공장, 강계에는 연필 공장, 화평에는 바리케트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팔프 및 제지 공업



팔프 생산에서는 우선 섬유소가 필요한데 이 섬유소는 식물체의 중요 구성 부문으로 되고 있다. 식물에 따라 섬유소 함유량이 각이한바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깔나무가 팔프 생산에 가장 적당하다. 이깔나무는 12%~15%의 수분을 제외하고 58.5%의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깔나무 이외의 침엽수 또는 활엽수 그리고 록초 등도 팔프의 원료로 될 수 있다. 팔프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목재나 기타 원료 이외에 류산과 소다가 많이 필요하다. 이들도 우리 나라에는 풍부하게 보장되여 있음으로 우리 나라의 이 공업 분야의 전망이 거대하다. 따라서 길주 팔프 공장에서는 목재에 의한 팔프가 생산되고 있으며 신의주 팔프 공장에서는 로초에 의하여 팔프가 생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팔프 원료인 목재가 건설 부문에 다량 소요됨에 비추어 로초와 옥수수 벼'짚 등의 록초에 의한 팔프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팔프는 제지, 인조 섬유, 질화면, 세루로이드 등의 기본적인 원료이다. 팔프에 의한 제지 생산은 길주, 신의주 및 회령의 제지 공장들에서 진행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제지 공업의 발전 방향은 현재 시설을 확장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 시킴으로써 각종 지류 생산을 제고 시키는 한편 가공지 생산 직장을 새로 조업시키며 목재, 팔프 대신 벼'짚과 옥수수짚을 리용하여 제지를 현저히 증가시키는데 있다. 그리고 목재 팔프와 로초 팔프는 주로 인조 섬유 생산에 돌리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목재와 로초 팔프를 가지고 양지를 생산하는 외에 닥나무 외피를 주원료로 하는 종이 즉 조선지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제지업의 력사는 견직업과 더불어 매우 길고 그 종이의 질도 매우 좋은 것으로 이름 나고 있다. 조선지 생산은 거의 조선 각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림산업과 림산 가공업은 우리 나라에 지여진 자연 조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면 할 수록 더욱 큰 발전이 예견되는바 문제는 우리들의 힘으로 그것을 현실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보다 협악한 지옥의 1년

1957년—이해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학정 하에 있는 남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질곡의 나날이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괴뢰 정권을 일층 파쑈화함으로써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며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발광을 다하였다.

이미 지난해 (1956년)에 괴뢰 정부, 경찰, 군대, 사법, 검찰 기관들에 있는 야당계 인물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자기의 추종 분자들로 괴뢰 정권을 더욱 《강화》한 리 승만 도배는 금년에도 《중앙》과 지방의 통치 기구를 자기에 대한 아첨쟁이들로 메꾸면서 괴뢰 정권을 더욱 파쑈화하였다.

미제의 비호하에 리 승만 도배는 《집회 및 시위 규칙》, 《정당 등록에 관한 법령》, 《출판물 림시 조치법》등 남조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 억압하기 위한 악법들을 계속 완강히 실시하는 한편 지어는 소위 《국민반》을 통하여 인민들의 언어와 행동을 감시케 하는 파쑈적 조치까지 취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마지막 한 쪼각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였다.

한편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미제 침략군의 장기 주둔과 리 승만의 파쑈 테로 독재를 합리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주목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저들이 처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위기를 모면할 목적으로 더욱 더 새 전쟁 도발 준비와 군비 증강에 광분하였다.

있지도 않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떠벌리면서 새해 첫날부터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며 동시에 《북진》소동을 일삼아 온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6월 21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 조선 경외로부터 증원 무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 협정 제12항 ㄷ목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뒤이어 에프 100형 쎄이버 제트기 등 신형 무기를 다량 반입하는 한편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 제7사단을 소위 5변 사단이라고 칭하는 《원자 사단》으로 개편하였다.

새 전쟁 도발 준비를 위한 놈들의 무모한 시도는 《유엔군 사령부》를 동경으로부터 서울로 옮겨 온 후 더욱 격화되였는바 9월에만 하여도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 극동 분과 위원장 스파크맨, 미 국무 차관 허터, 미 대통령 특별 보좌관 디어본, 태평양 지구 미군 사령관 스텀프 등 미국 전쟁 상인들이 남조선에 드나들면서 《북진》소동에 미쳐 날뛰는 리 승만을 《고무》하였다.

이리하여 지난 1년 동안 남조선에서는 련일 포성이 은은하였는바 10월 한달 동안에만 하여도 《국군의 날》에 제한 대규모적인 《열병 분렬식》, 미 해 공군도 참가한 괴뢰 해병대의 상륙 작전 훈련, 미 제8군의 공습 경보 훈련, 괴뢰 제1군의 소위 원자전을 위한 기동 련습이 감행되였다.

이와 같이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금년에 괴뢰 정권을 더욱 파쑈 군사화하는 한편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남조선

민족 산업과 인민 생활을 더욱 도탄에 몰아 넣었다. 매국적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은 금년 11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미국 독점 자본은 상업, 공업, 금융업을 비롯한 남조선의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공개적인 침투를 감행하게 되었다.

미제의 사자본 투입을 무제한하게 허여하는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의 실시, 《증여》식 《원조》로부터의 차관으로의 전환 등, 남조선 경제를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한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일련의 책동은 남조선에 형용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를 조성시켰으며 민족 산업과 농촌 경리를 총파탄으로 이끌어 갔다.

더욱이 군사비 지출을 위하여 인민 생활과 관련한 산업과 농업에 대한 융자, 교육과 보건 부문에 대한 지출, 로임의 지불 등을 극도로 억제하는 괴뢰 정부의 《초긴축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경제 형편은 금년 한해 동안에 더욱 악화되였다.

이리하여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리 승만 도배는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출로를 찾으려고 광분하고 있는바 각종 세금을 강압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10월 10일부터는 각종 운임을 비롯한 일부 《관영 료금》을 87%까지 대폭 인상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유연탄 판매 가격을 54% 더 인상하였다.

《초긴축 정책》이라는 이름 밑에 중, 소 기업가들에 대한 융자마저 없애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살인적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리 승만 도배의 민족 경제 말살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민족 산업은 날이 갈수록 파산 몰락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시내 중, 소 기업체의 84%가 조업을 중지하였었다.

동양 통신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공업 지대의 하나인 강원도 삼척 지구의 공장들도 대부분이 조업을 중지하였다. 경제적 파산은 중, 소 기업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공장들까지 파급되고 있는바 이렇듯 재정난으로 인한 파산이 대 기업체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금년의 남조선 경제의 특징의 하나이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예속화 정책은 금년에 남조선 농촌 경리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깊은 함정으로 몰아 넣었다.

군사 기지 확장에 따르는 토지의 계속적 략탈과 군대에로의 농촌 청, 장년 로력의 징발은 농업의 쇠퇴를 더욱 촉진시켰는바 남조선의 파종 면적은 해방 전에 비하여 현재 근 60만 정보나 감소되였다. 미제가 《유엔군 사령부》의 서울 이동과 관련하여 농민들 한테 빼앗은 땅만 하여도 10만 정보나 된다.

특히 농민들을 더욱 조직적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리 승만 도배가 금년에 조작한 소위 《농업 협동 조합》, 《농업 은행》의 강제적 조직으로 인하여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한 구렁에 빠지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 농민들은 1천억환의 부채에 얽매여 기아적 략탈을 당하고 있으며 350만 이상의 농민들이 1년의 절반 이상을 초근 목피로 연명하고 있다. 금년 남조선 절량 농가는 120만호를 넘었다.

이렇게 금년중 더욱 악화된 경제 형편에 처하게 된 남조선에서는 실업자 및 반 실업자 수가 360만을 헤아리고 있으며 61만명의 걸식 아동과 수십만 미취학 아동들이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략탈 정책에 기인하는바 미제의 식민지적 략탈과 리 승만 도배의 반인민적 매국 정책으로 인한 남조선의 경제적 위기는 놈들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면서 남조선을 전대 미문의 암흑 천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금년에 남조선에서의 민족 문화도 더욱 혹독하게 말살하며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침략적 파쑈모뽈리찌즘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강요하는 한편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발전하는 온갖 진보적 사상을 억압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우선 남조선 청년들의 반미 감정을 억제하며 그들을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남조선의 교육 기관을 일층 파쑈화하였다.

리 승만 도배는 지난 8월 《병역법》을 개작함으로써 대학, 고등 학교 학생들을 재학 중에 《국군》에로 강제 징집하는 것을 합법화 하였으며 학원 내에 군사 경찰적 질서를 강화하면서 학생과 교원에 대한 사상적 감시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리 승만 도배는 금년 소위 《학교 설치 기준령》을 발표하고 영남 대학, 충부 대학을 비롯한 수개의 대학과 수 많은 고등 학교를 페교함으로써 그에서 얻어진 학교 관리 운영비를 군사비로 충당하였으며 학생들을 《국군》에 강제 입대시켰다.

리 승만 도배가 강요하는 과중한 납부금의 징수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고통을 계속 주고 있다.

금년에 들어 서면서 리 승만 도배는 또다시 《납부금》을 대폭 인상시켰는바 이로 인하여 《입학금》만 하더라도 중학교에서 27,650환으로부터 29,850환, 고등 학교에서 3만환으로부터 32,000환으로, 대학에서는 거의 10만환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각종 납부금의 강요와 모리 행위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남조선 학생들 속에서 타락과 자포 자기를 조장시키고 있는바 금년에만 하여도 서울 동화 고등 학교 학생 김 덕봉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난으로 인한 비관 끝에 자살하였다.

오늘 남조선은 백주의 날강도들인 미제 놈들의 만행으로 하여 피비린내 나는 땅으로 되고 있다.

금년 4월 경기도 파주군의 평화적 주민 부락을 습격하여 야만적 폭행과 략탈을 감행한 것을 비롯하여 금천 비행장에서 죄 없는 조선 소년을 사살한 이야기며, 송유관에서 흘러 내리는 기름을 받고 있는 조선 부인을 도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살하고 그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 등 련일 련속 알려진 놈들의 그 만행을 어찌 일일이 례거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미제의 천인 공노할 야수적 만행과 식민지 략탈 정책은 오늘 남조선 청년들과 인민들의 민족적 의분과 증오를 더욱 거세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외국 출판물들도 쓰고 있는 바와 같이 《반미 감정은 남조선의 온 도시와 마을을 휩쓸고 있다.》

날이 갈수록 자기들이 겪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조선 인민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금년에도 온갖 탄압을 무릅쓰고 미제와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하는 투쟁을 용감하게 전개하였다.

자기들을 해고한 고용주를 반대하고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3일간에 걸쳐 괴뢰 《보건 사회부 장관》실 앞에서 롱성 투쟁을 전개하여 요구를 관철시킨 인천 부두 로동자들의 투쟁을 위시하여 금년 첫 수개월 동안에만 하여도 남조선 로동자들은 서울, 인천, 목포, 대구 등지에서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대전, 영덕, 안강, 부안, 완주, 보성 등 거의 전 지역에서 《쌀을 달라!》《대한 민국을 타도하라!》고 웨치며 롱성, 시위 등 투쟁을 진행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강제 징소집 정책과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의 투쟁도 금년에 현저히 증대되였는바 서울 경동 고등 학교, 전북 대학,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위시하여 금년도 2.4분기에는 작년도 2.4분기에 비하여 투쟁 건수에 있어서 179%로 장성하였다.

도시 주민들도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학정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지난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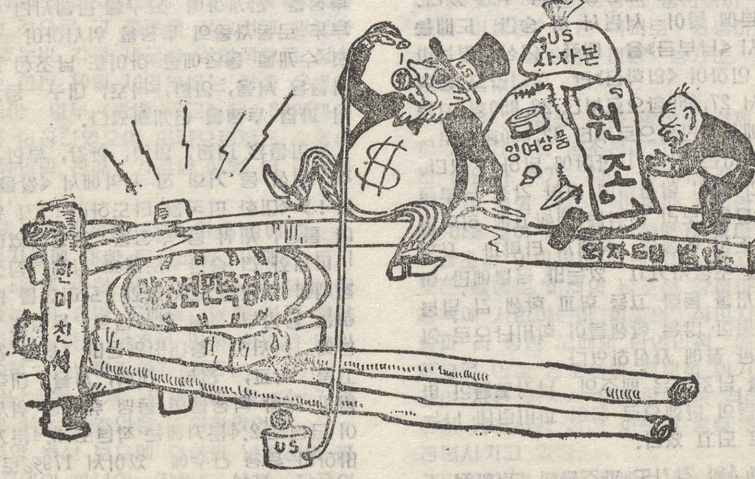
26일 부산에서 리 승만 괴뢰 경찰이 집단적으로 불의 습격하여 많은 판자집을 강제로 파괴한 것을 반대하여 200여명의 소시민, 로인들과 부녀자들이 《살 집을 내놓아라!》고 웨치며 도 지사의 사무실을 습격하고 30여명의 경찰과 충돌하여 두시간 동안이나 돌과 주먹으로 싸웠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여 일어 서는 그들에게 언제나 고무적 힘으로 된 것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채택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선언이며 그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공화국 남반부 인민들과 더불어 그곳 청년들은 우리들이 보내주겠다는 쌀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우리가 보내주겠다는 전기를 받기 위하여, 그들은 우리와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만발한 생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힘차게 궐기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청춘의 보람을 간직하자면 자기들이 발붙이고 있는 땅에서 미제 살인귀들을 쫓아 내야 한다는 것을 지옥살이의 체험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드높은 노래를 통하여 자각하고 있다. 바야흐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구국 투쟁의 불'길이 료원의 불'길과도 같이 더욱 더 세차게 타오를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의 정체



생물의 기원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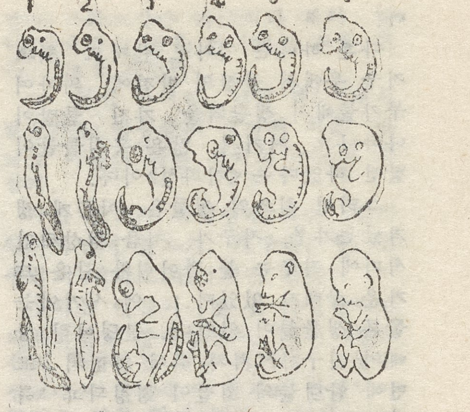
평양 사범 대학 생물화학부

최 여 구

지구 우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생물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크게 식물과 동물을 나누어 말한다. 생물 가운데는 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진 것과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들이 있다. 즉 하등한 종류로부터 고등한 종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것들이 있다.

생물은 하등한 종류나 고등한 종류나 할것 없이 모두 다 생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외계(外界)로부터 양분을 섭취하며 공기나 물속에서 호흡하며 성장하고 번식하며 감각하고 운동한다. 동물과 식물들은 이와 같은 생활 기능 즉 생활력을 가진 생물이다. 이러한 기능은 다른 물체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체만이 가진 특징인 것이다. 생물들은 지구 우에 극히 광범하게 분포되여 살고 있다. 열대 지방에서 부터 극(極)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깊은 바다 밑으로부터 높은 산 우에 이르기까지 생물들이 없는 데가 없다. 생물은 공중이나 땅속에도 살고 있다. 이들의 종류를 조사하여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메바나 박테리아와 같은 것으로부터 기리가 30 메터에 달하는 고래나 또는 소나무와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종

1 2 3 4 5 6



척추 동물의 발생 비교 1. 어류 2. 도롱룡 3. 거북 4. 닭 5. 소 6. 사람

다양하다. 생물들은 크기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그의 구조도 또한 각각 다르다. 식물계에는 많은 풀과 나무들이 있다. 꽃이 피지 않는 식물들도 있으며 다른 물체에 붙어서 사는 식물들도 있다.

물속에서 사는 종류와 마른 땅에서 사는 종류들도 있다. 잎과 줄기의 구조도 각각 다르며 꽃과 열매도 모두 다르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구 우의 식물은 약 80만종이고 동물은 100 만종이 넘는다. 이와 같은 수 많은 생물들은 우리 지구 우에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결과를 거쳐 왔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정 반대되는 두가지 대답이 있다. 그 하나는 신의 《창조설》 인바 이 설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신(귀신)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종교가 꾸며낸 이 주장은 봉건과 자본주의 반동 세력들의 치지를 받고 있는바 이 주장은 지배 계급들이 자기들의 반동적 사회 제도를 유지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반동적 《리론》에 불과한 것이

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최초 지구 우에서 물질의 발전에 의하여 무기물에서 생활력을 가진 물질이 나타나고 여기서 많은 동식물들이 발전 하였다는 《진화설》이다.

그러면 최초의 생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지구가 처음 형성되던 시기에 지구는 불 덩어리와 같은 뜨거운 상태로 있었다. 이 시기에는 물론 생물들이 없었다. 불덩어리 상태의 지구가 차차 식어 가면서 표면에 암석들의 껍질이 형성되고 륙지와 바다가 생기게 되였다. 이 시기에 지구 우에서 무기 물질들이 서로 화합(化合)되면서 물 속에서 처음 생명체가 생겨졌다. 이와 같은 과정은 현재의 과학 수단들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 최초 생명체는 극히 간단하고 미세한 것이였는데 이런 것이 오랜 시일을 지나서 아메바나 박태리야와 같은 것으로 발전되였다.

그러면 이렇게 생물들이 간단한 것으로부터 점차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써 증명되는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의 암석들은 층층으로 놓여 있다. 이를 지층이라고 하는데 이 지층들은 오랜 시일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즉 그것은 암석으로 될 재료들이 순차로 물밑에 가라 앉어 굳어진 것이다. 이 지층 속에는 그 시대 시대에 살던 동, 식물들이 파무쳐 있다. 이것을 화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랜 지층 속에 들어 있는 화석들은 간단한 종(種)들이고 오래지 않은 지층에 들어 있는 것들은 복잡한 종들이다. 즉 아래'지층 일 수록 하등한 화석 종들이 들어 있고 우'지층일 수록 고등한 화석 종들이 들어있다. 이 사실은 지구상의 생물을 신이 만들었다는 《창조설》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층 속에 들어 있는 화석들로 미루어 볼진대 매개 시대별로 생물들의 종류가 달랐으며 지구상의 생물들이 점차로 변하고 발전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에 신의《창조설》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매개 지층 속에는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 식물들의 화석이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지층의 그 어데에서도 오늘날의 고등 생물들의 화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물이나 식물체의 구조들을 보면 그 기초가 세포라는 공동적인 구조로 되여 있다. 일반 식물체를 보면 겉으로는 서로 각각 다르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모두 뿌리를 땅에 박고 줄기와 푸른 잎이 있으며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어 번식한다. 이것은 일반 식물들의 공통성인 것이다. 동물체들에서도 더욱 비슷한 구조들을 볼 수 있다. 물고기, 개구리, 도마뱀, 새, 짐승들을 보면 외관상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것들의 몸에는 모두 척추가 있으며 외부에는 운동하는 사지들이 있고 두부에 입과 눈과 귀들의 감각기관이 있다. 이것은 서로 비슷한 점이다. 짐승들만을 본다면 비슷한 점이 더 많다. 그것들은 전부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르며 피부에는 털이 덮여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외부와 내부 구조들이 비슷하다. 짐승들 중에서도 원숭이는 나무에 올으며 개는 지상을 달리며



말의 발전도

1.600 만년전 (노루의 크기)
5.100 만년전 (현대말의 크기)
2.3.4.—중간시기의 말

박쥐는 공중을 날며 두더지는 땅을 파며 고래는 물에서 헤염치는 등 그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몸의 구조와 특히 사지의 겉 모양이 다르다. 그러나 다섯 개의 발가락을 가진 사지 골격의 기본 구조는 똑 같다. 이상과 같이 동식물들이 놀랄만치 비슷한 구조들을 가진 것은 각종 생물들이 동일한 선조에서부터 생겨났다는 증거로 된다. 창조설의 주장과 같이 신이 매개 생물들을 우연하게 만들어 냈다면 그것들의 구조가 그처럼 비슷할리 만무하다.

생물들이 발생하는 과정을 조사 비교하여 보면 더욱 재미 있는 사실들이 있다. 동물들의 알이 발육하여 새끼 시대로부터 성숙체로 되는 것을 발생이라고 한다. 발생하는 과정은 처음에 간단한 구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구조로 발달한다. 여러 동물들의 발생 과정을 비교하여 보면 처음 시기에는 어느 것이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발육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로 달라진다. 물고기나 개구리나 새의 알이 발육하는 처음 시기에는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 뿐만 아니라 어미 배'속에서 발육하는 짐승들의 새끼의 처음 단계도 이들의 처음 시기의 구조와 똑 같다.

다만 발육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달라지면서 물고기, 개구리, 새, 짐승들의 새끼로 완성되여 간다.

우리는 이상의 몇 몇 사실들에만 의하더라도 동식물들이 신의 《창조설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에 동일한 선조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발전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처음에는 야생 동, 식물이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돼지의 선조는 산에 살고 있는 사나운 메'돼지였고, 벼의 원시종은 지금도 인도 지방에 야생하고 있는 잡초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 야생종들은 사람이 오랜 시일에 걸쳐 기르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돼지나 벼로 변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작물과 가축, 가금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힘에 의하여 그 구조와 본질들을 변경시킨 것이다. 쏘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작물과 가축, 가금들의 우수한 품종 개량 사업들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동물과 식물이 변화 발전하는 원칙은 우리들의 농업 생산에 직접 도입되여 큰 리익을 주고 있다.

마감으로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보면 생물의 기원에 대한 더욱 뚜렷한 결론을 얻게 된다. 사람은 어머니 배'속에서 10개월 간의 발생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처음엔 목 좌우에 어류와 같은 아가미 구멍이 보이고 나중 까지 짐승과 갈

은 긴 꼬리가 있으며 낳기 직전까지 전신에 긴 털이 덮여 있다. 사람의 태아를 다른 동물들의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보면 어류나 개구리, 새, 짐승들과 그 구조가 동일한 단계가 있으며 특히 원숭이와는 최후의 단계까지 흡사한 구조를 가진다. 이 사실은 여러 동물들이 동일한 선조에서 기원된 것과 같이 동물계의 일원인 인간도 하등 동물에서 출발하여 물고기와 같은 시대나 짐승과 같은 시대들을 거쳐서 인간으로 발전하였다는 증거로 된다.

특히 최후에 원숭이와 같은 시대를 거쳐온 것이 분명하다. 인간은 그의 외부 구조나 내부 구조에 있어서 다른 짐승들과 비슷하며 특히 원숭이와는 구조 뿐만 아니라 생리 기능까지도 비슷하다. 또한 사람과 원숭이가 같은 기생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혈연적으로 서로 가까움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현재 기능상 아무런 필요도 없는 기관들이 적지않게 남아있다.

우리 귀 밑에는 귀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다. 짐승들은 이 근육으로 귀를 움직이면서 소리를 잘 듣는다. 우리는 어떤 큰 소리가 들릴 때 토끼의 두 귀가 빨죽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는 달리 사람은 소리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릴 뿐 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먼 과거에는 사람도 귀 밑에 달린 이 근육을 놀리였던 것이다.

이런 례는 우리 내부 기관에서도 볼 수 있다. 대장 첫 부분인 맹장에 조고마한 돌기가 달려 있다. 토끼 같은 짐승들의 경우에는 이 돌기가 소화와 흡수 작용을 한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고 간혹 염증을 이르켜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 이 돌기는 수술하여 버려도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기관들이 우리 몸에 100여 개나 된다. 이것들은 모두 지난 시대에 필요하였던 것이며 우리가 하등한 선조에서 기원한 증거물들인 것이다.

생물의 진화 발전을 반대하는 자들은 인간의 기원을 신비화 하면서 세계엔 우수한 인종과 저렬한 인종이 있으며 또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되여 있는 것 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수한 인종과 저렬한 인종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자기들이 속하는 우수한 인종이 저렬한 인종들을 영원히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창조설》에서부터 출발한 인종론이나 그 외의 온갖 반동적 주장들은 무너져가는 제국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생물들은 력사적으로 진화 발전하였으며 인간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시 두 편

귀중한 말!

김 학 연

여보게 젊은이
내 얼굴의 줄음을 좀 보게,
나도 올해에 예순, 그러니 임자네들
생활을 알려거던 나에게 묻게….

이 늙은것의 두 손을 보게,
얼어 붙은 솥뚜껑에 엎드려
마지막 숨 끊기인 내 안해를
난, 이 손으로 묻었네….

이 늙은것의 가슴을 잊지 말게.
어미를 잃은 어린것이
이 애비의 가슴에서 젖을 찾다 찾다
그만 그마저 숨을 끊었네….

눈에 눈물마저 마르던,
오직 가슴에 피만 끓던,
그런 때는 지났네…그것은 옛말이네.
저 알곡의 산이며 덩실한 집들을
보게….

세월이 저절로 좋아진게 아니네,
여보게 젊은이, 우리에겐
올해에도 세월을 당긴 힘이 있었네,
바로 우리 당이 솟음치게 한 그런
힘이….

청춘의 날개도

아름답구나, 끝없이 끝없이
첫눈 나리인 강언덕이,
언덕에 늘어선 버들숲이,
아직도 채 얼지 않은 푸른 물
그의 하늘처럼 맑음이….

해'발을 받아 눈부신
첫눈 나리인 먼 산발도,
가슴에 묘망한 은반의 들판도,
아름답구나, 끝없이 끝없이….

생활이란 아름다운 것이니,
어깨에 두엄을 진 조합 처녀
머리를 들어 날으는 종달이 보고
눈을 흘기던 봄날도 좋았다.

황금 물'결에 조각달이 기울던
어느날의 밤'길, 밤'길에 서서
미루나무 한구루, 새에 두고서
분배나 받고나선 새 집에 들자던
두 청춘의 기약도 좋았다.

아름답구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청춘은…
허지만 잊지를 않으마! 생활이여!
그대 걸어온 로동의 나날을,
깊이 명심하자! 청춘의 날개도
당의 품에서만 펼치여짐을….

오체르크

사랑하게 될때에는

엘리자 바지예바



내가 처음으로 바꾸를 찾아 갔을 때 일이였다. 남방의 저녁이 대개 그러하듯이 바꾸의 저녁은 급작스럽게 찾아 왔다. 어둑컴컴한 짙은 하늘에 크고 맑은 별들이 하나 둘 반짝이기 시작하고 종일토록 소란스레 설레이던 까쓰삐해도 어느덧 잔잔해졌다. 진주알을 꿴 실오리와도 같이 거리 거리에 전등'불이며 네온싸인들이 줄을 이어 깜빡거리고 있었다.

이때 나는 발꼰에로 나가려다 그만 주춤하고 뒤로 물러 서고 말았다. 바로 옆에 달린 이웃 발꼰에서 키가 성큼한 청년이 호리호리한 처녀를 꼭 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막 돌따 서려는 판에 그 청년이 나를 보고 홱 돌아 서더니 무척 당황해 하면서 서투른 로씨야 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분은…저…저의 약혼녀입니다. 싸아다트라고 부르지요.

다음 날 청년은 나의 방을 찾아 와서 자못 솔직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서로 알고들 지내고져 합니다. 당신은 엊저녁에 벌써 저를…보았습지요.

알고 보니 그는 라쑬르라고 부르는 공청 일'군이였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는 방금 전까지의 공청 일'군이였다. 이윽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남을 믿고 흉금을 털어 놓는 그런 진정의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였다.

× ×

자그마한 구역 도시에 사는 청년쫄치고 명랑하고 정력적인 구역 공청 비서 라쑬르 가드쥐에브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엇보다도 먼저 소박하고 좋은 인간을 발견하였다. 라쑬르는 본래 면화 가공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3년전에 구역 공청에서 그를 《끌어 올려》다가 지도원의 자리에 앉힌 다음 첫번째 꼰페렌찌야에서 결국 비서로까지 선거하였던 것이다.

비서의 《안락 의자》를 차지한 뒤에도 청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뷰로 회의 때를 제외하고 그가 자기의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그는 자기 구역의 지리와 경제, 구역의 사람들과 특히는 청년들을 손'금같이 소상히 꿰뚫고 있었다. 꼴호즈 위원장들은 가드쥐에브를 무척 존경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라쑬르와 그의 공청 일'군들은 청년들을 궐기시킬 줄 알았을 뿐더러 그들 자신이 직접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들의 줄기찬 로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군 하였던 것이다. 청년들의 방조로 하여 구역은 마침내 알곡 수확에서나 축산품 생산에서나 당당한 선진 구역의 대렬에 올라 서게 되였다.

그가 싸아다트를 알게 된 것은 바꾸의 축전에서였다. 처녀는 끼로브 공원의 야외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었다. 하이얀 옷차림에 키가 성큼하고 몸매가 날씬한 그 처녀는 라쑬르가 보기에 흡사 이른 아침의 상냥한 첫 해'살 아래 방금 입을 연 부드러운 장미꽃과 같이 아름다웠다. 처녀는 청중들의 머리 넘어 어딘가 멀리를 바라보면서 상글상글 웃으며 노래 불렀다. 처녀는 꽃이며 태양이며 사랑을 노래 불렀다.

처녀가 노래를 끝내고 무대에서 곧바로 군중쪽을 향해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자 라쑬르는 옆에 서 있는 마메트 따기에브에게서 구역 축구팀 주장인 레슈까 까뜨꼬브한테 안겨 주려고 준비한(그들은 이번 축전에서 구역팀이 영낙없이 우승하리라 믿었다) 장미꽃 묶음을 후딱 나꿔채 가지고 앞으로 비집고 나가더니 처녀를 멈춰 세우고 말 없이 꽃묶음을 쑥 내밀었다. 처녀는 다소 얼굴을 붉히였으나 그래도 꽃묶음을 받아쥐면서 대답으로 미소까지 지어 보이였다. 그들 사이에선 이야기들이 벌려지기 시작하였다. 라쑬르는 처녀가 음악 대학 학생이며 미래의 배우라는 것을 알았다. 이날 저녁 그들은 알락 달락한 꽃 테프며 천연색 가로등들로 아름답게 장식된 화려한 공원의 가로수 길을 오래도록 산책하였다. 라쑬르는 이토록 기쁘고 유쾌한 날이 이제껏 한번도 있어 본 것같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의 우정은 맺어지기 시작하였다.

라쑬르 가드쥐에브가 구역 공청 비서로 일하고 있는 구역 중심에서 아제르바이쟌의 수도까지는 기차로 불과 서너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지라 매 일요일마다 그는 바꾸를 찾아 가게 되였다. 그들은 흔히 교외의 신기로울만큼 기묘하게 생긴 큼직큼직한 돌바위들이 그림같이 웅게중게 깔려 있는 《괴이한》 해변' 가에 나가군 하였다. 여기 이 바다'가에서 그들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여기서 싸아다트가 그 아름다운 목청으로 아제르바이쟌의 민요들을 불렀고 바로 여기서 그는 사랑도 고백하였던 것이다.

× ×

싸아다트에게서 오래'동안 설유와 간청을 받아오던 끝에 마침내 라쑬르는 용기를 내여 싸아다트네 집을 찾아 가기로 결심하였다. 천성이 그렇게 소담한 편은 아닌 라쑬르였건만 싸아다트의 말대로 공화국의 과학계에서도 명성이 높다는 그의 부친을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기의 훌륭한 자질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였다.

…싸아다트는 방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서 그를 가볍게 앞으로 떠밀었다. 덩실한 객실에 발을 들여 놓은 라쑬르는 그만 아연자실하고 말았다. 객실은 방바닥이며 바람벽이며 방구석들에 서 있는 낮으막한 쏘파들이 온통 호화로운 우단에 덮여 있었다. 객실의 한쪽 구석에는 자개를 박아넣은 피아노가 서 있었고 수다한 작은 원탁들이며 둥근 식탁은 고급 레스또란에서처럼 은으로 메끼되여 있었다.

50세 난다는 쑬따노브는 정말 젊고 수려해 보이였다. 스포츠복식으로 만든 담록색 양복과 바둑판 무늬의 하들하들한 루바슈까가 그의 우아한 몸매에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어서 그가 지금 한창때라는 인상을 더욱 강렬히 느끼게 하였다. 그의 마누라 역시 퍽 맵씨있게 차리고 있었다. 그 녀자는 그 자그마한 아릿다운 머리를 거만스레 치켜 들고서 노래 부르듯 부드럽게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라쑬르는 자기의 옷차림을 아래우로 훑어 보는, 가늠하는 듯하는 녀주인의 가차 없는 시선을 감촉하자 바싹 긴장하였다. 쑬따노브 자신은 아주 드러내 놓고 손님을 랭대하였다. 만나자 곧 판전을 피였으며 식사 중에도 말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라쑬르는 점차 싸아다트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이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이 거북살스럽고 피로웠다. 지어는 싸아다트 자신도 이 호화로운 객실에서는 판판 다른 사람이 된듯 느껴졌다. 녀주인은 사

표적인 어조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캐여 묻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전망은 어떠하며 공청 일'군들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고 조심스럽게 물어 보기도 하였다. 라쏠르가 자기의 어머니는 비록 늙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유치원에서 소제부로 일하고 있노라고 말하였을 때 싸아다트는 너무도 뜻밖의 소리를 들었는지라 확 얼굴을 붉히면서 손'벽을 탁 쳤다.

—저 보고는 왜 여태 얘길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묻지 않았지요—하고 라쏠르는 부드럽게 대꾸하였다.

오찬은 사뭇 랭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 ×

한 주일 후에 그들은 다시 만나서 역시 그 《피이한》 해변가로 나갔다. 늦은 가을이였다. 바다는 거치른 숨'결로 소란스레 설레이였다.

라쏠르는 설레이는 저 바다처럼 자기의 가슴 속도 거칠고 무겁다는 것을 싸아다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고 처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처녀는 닁큼 두손을 외투 호주머니에 감추고서 바다를 등지고 홱 돌아 앉더니 사뭇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은 반드시 새 양복을 지어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였다.

—저의 생일날이 인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하고 처녀는 말을 이었다.

—그날엔 손님들이 많이 올거야요. 그렇지만 저에겐 당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손님이 될거예요.

라쏠르는 싸아다트가 자기의 생일 잔치에 수많이 모여 올 다른 어느 손님들보다 짝지지 않게 훌륭히 차리고 오는 라쏠르를 보고 싶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기에 아무런 모욕도 나쁜 점도 느끼지 않았다. 도리여 그는 싸아다트가 그런 걱정까지 해 주는 것이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나 도대체 무슨 연고로 싸아다트는 마치도 양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인 것처럼 그다지도 양복 이야기에 큰 의의를 붙이고 있는 것일가?

라쏠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불쾌하였다. 그러나 그는 될수록 빨리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썼다.

…만사는 전이나 다름 없이 흘러 갔다.

그러는 어느날 라쏠르는 전보를 받았다. 그것은 긴급히 바꾸에 나와 달라는 싸아다트의 부탁이였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뒤숭숭해진 라쏠르는 그날 일이 끝나자 곧 바꾸로 떠나갔다. 그는 직접 정거장에서 싸아다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싸아다트는 곧 집에서 나왔다.

처녀는 사뭇 명랑한 태도로 인사를 나누고는 라쏠르와 함께 뻰치에 앉아서 자기가 라쏠르한테 시집가려는 의향을 드디여 집 사람들에게 털어 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처음에 부모들은 그것을 단호히 반대하였으나 싸아다트가 이러나 저러나 간에 자기는 제 생각대로 실행하겠노라고 고집을 쓰게 되자 그들도 하는 수없이 양보하고 말았다는 것이였다. 그들은 라쏠르를 바꾸의 어느 기관에 취직시키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상론을 거듭하던 끝에 마침내 아주 편리하고 마침한 자리를 발견하게 되였다. 여기까지 단숨에 죽 이야기하고 나서 싸아다트는 사뭇 능글맞게 두 눈을 반짝거리며 잠시 말을 중단하였다. 라쏠르는 덤덤히 앉아 있었다.

—당신은 은행 검열원으로 일하면서 재정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거야요! —싸아다트는 불쑥 이렇게 말해 놓고는 어떠세요? 하는, 기대하는 듯한 눈으로 라쏠르를 익히 쳐다 보았다.

라쏠르는 싸아다트를 괴롭히기가 저으기 두려웠으나 어쨌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털어 놓았다.

—나는 그런 직업이 마음에 안드오!

—무슨 소리를 하세요! —하고 처녀는 량손을 쩍 벌려 보이였다— 엄마가 말하는데 조곰도 힘든 일이 아니래요. 그리구 상점 지배인이랑 극장 지배인이랑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구 무서워들 할거라고 해요… 지금보담은 봉급을 곱이나 많이 받을 거야요…

라쏠르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1만 5천루블리는 모아야 해요. 우린 그것으로 우단과 피아노를 사구요… 그리구 가구는 딸린에서 사와야 해요…

라쏠르는 천천히 처녀의 손을 물리치며 움쭉 일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그길로 그는 밤차를 타고 떠나 갔다. 그는 지지누르는듯 하는 무거운 생각, 음울한 사색에 잠겨 떠나갔다… 라쏠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싸아다트가 함께 걸어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아주 명백하게 되였다. 그 녀자는 호화로운 사치한 생활, 안일한 생활에 너무나도 깊이 물젖어 있는 까닭에 다른 환경이란 애당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허지만 그거야 사실 리기주의적 타산에서 하는 말은 아니잖는가— 하고 라쏠르는 스스로 자위를 해 보았다— 그 녀자가 호화로움과 안일한 생활을 바라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어느덧 라쏠르의 눈 앞에는 저으기 사팔뜨기인 싸아다트의 사랑스런 두 눈이 우렷이 떠오르고 그 녀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늑히 회상되였다. 그러자 그는 똑똑히 깨달았다. 싸아다트를 위해서는, 오직 그 녀자를 위해서는 그가 양보해야 하는 단 한가지 길 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다! 양보해야 한다… 애오라지 그 녀자의 사랑스런 두 눈에서 기쁨을 찾아 읽을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느라니 무척도 그리운 아름다운 싸아다트가 그에게로 다가 오는듯 싶었고 다가와서는 그를 불러내는 것만 같았다. 하여 라쏠르는 오래인 동요 끝에 마침내 비록 이번 주간부터 전구역적으로 토요 로동이 다시 전개되기로 되여 있었고 따라서 그는 반드시 청년들과 함께 있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토요일에 바꾸로 나가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고스란히 제 2 비서에게 넘겨 씌웠다. 이렇게 하면서 량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떠나고 말았다. 싸아다트를 만나고 보니 량심의 가책도 가뭇 없이 사라지고 토요 로동이며 구역 공청이며 엠•떼•에쓰의 떠들썩한 청년들도 모두다 까맣게 잊혀지고 말았다… 싸아다트가 있는 동안은 기쁘고 즐거웠고 헤여지는 순간은 점점 더 괴롭고 야수하였다. 바꾸로 옮겨 오라는 이야기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며 돈에 대한 이야기로 하여 라쏠르가 모욕감과 노여움을 느끼는 일도 차츰 적어졌다. 싸아다트는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행복을 바라고 있다. 그렇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하여, 과연 이것이 나쁘단 말인가?

이렇게 라쏠르는 뒤엉키고 혼란된 상념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제껏 품어오던 자기의 신념을 저바리고 뒤'걸음을 치기 시작하였다.

…드디여 은행 지배인을 찾아 간 그는 면구스러운듯 눈을 내려 깔고 가지고 온 문건을 내 보이였다. 이리하여 라쏠르는 목요일부터 일하러 나오기로 약속이 되였다. 이 날 그는 재정 대학에도 가서 입학 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리하여 판판 다른 새 생활이 시작되게 되였다. 공청에서는 그를 내놓지 않으려고 오래'동안 애를 써 보았다. 비서들은 그더러 설유도 해보고 간청도 해 보고 그의 공청원적 량심에 호소도 해 보았다. 그러나 라쏠르는 그때마다 그럴듯한 어쩔 수 없는 구실을 방패로 내 걸었다. 그는 언명하기를 자기는 재정 대학 통신 학부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자면 자기가 이제부터 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금융 기관에서 반드시 일해야만 한다고 꾸며댔던 것이다.

새 일터의 유리성을 그는 인차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그에게 꽤 높은 봉급을 주고 또 새 아빠트까지 배당해

주었는데 그 집은 이제 수개월만 있으면 곧 인수하게 되여 있었다.

…그날 저녁 려관에서 이웃방 청년이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는 대체로 이러하였다.

× ×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는 그가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라쑬르는 지친 듯이 손을 내저으며 시들하게 대꾸하였다. —

—검열을 합지요. 상점이며 창고며 레쓰또란들을 검열한답니다.

하고는 잠시 사색에 잠기더니 이윽고 궁글은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뇌까렸다.

—제가 숙망해 오던 일은 이런 것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단 사랑하게 되면 그때엔 무슨 일이던 다 하게 되는 법이랍니다—하며 시계를 힐끔 들여다 보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던 모양으로 일어나서 부랴부랴 돌아가고 말았다.

나는 이날 먼 도시와 시외 전화를 걸어 놓은 것이 있어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장시간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천만 뜻밖에도 라쑬르 가드쮀예브의 생활에서 또 하나의 에피소트를 목격하게 되였다.

이웃 방에서는 밤이 이슥하도록 마시고 말다툼질을 하였다. 얼마후 나는 열려진 창문을 거쳐 제3자가 들어서는 안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똑똑히 엿듣게 되였다. 처음에는 웬 두 사람이 아제르바이쟌어를 주고 받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 대화에서 내가 알 수 있은 것은 단지 두명중 한명은 라쑬르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아주 흥분되여 말을 주고 받고 한다는 것 뿐이였다.

그러나 잠시후 세번째 목소리가 나타나서 순수한 로어로 《합의들을 보았소?》하고 거칠게 물었을 때는 나도 불현듯 바싹 긴장되여 귀를 도사리기 시작하였다.

분명히 라쑬르와 말다툼하던 사람이라고 짐작되는 작자가 그에게 대꾸하였다. 혀꼬부라진 탁한 목소리로 그는 욕지거리를 한바탕 본때있게 늘어 놓고 나서 거칠은 악센트로 이렇게 뇌까렸다.

—바보라니까! 돈을 받지 않는구려!

—돈이 적어서 그러는게 아니요?—하고 다른 목소리가 가만히 물었다.

—1만 루블리가 적다니요!—하고 혀꼬부러든 목소리가 다급스레 웨치였다. 그리고는 곧 잠잠해졌다.

나는 검열원이 뢰물을 권고받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 침묵이 그렇게 오래 끄는 것으로 미루어 나는 라쑬르가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도 역시 느끼였다. 로씨야 사람은 여기엔 아무런 위험도 없노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타 일렀다. 그 문제들은 모두 다 무사하게 해결될 것인데 다만 조서에다 보석부의 부족량을 지적만 하지 않으면 된다. 2—3일 후이면 《검열원 동지》자신이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열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라쑬르는 잠자코 있었다.

커다란 려관이 온통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이튿날 아침 나는 바꾸를 떠나가게 되였다.

× ×

당시 그 청년의 운명은 나로 하여금 몹시도 흥분케 하였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긴급히 떠나야하는 사정은 나의 모든 소망을 수포로 돌아 가게 하였다.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당시 나는 내가 뜻밖에 번덜머리 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라쑬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자책으로하여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는 어느날 나는 다시금 바꾸를 찾아가게 되였다. 렬차가 모쓰크바를 떠나 아제르바이쟌의 수도까지 연연 1천 6백키로를 달리는 그 사이에 나는 라쑬르와 싸아다트의 운명에 대한 걱정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안한 초조감을 단 한순간도 털어 버릴 수 없었다. 량심의 가책은 라쑬르를 찾아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기어코 알아내야겠다는 마음의 충동을 더욱 세차게 부채질해 주었다.

바꾸에 당도하자 나는 우선 수소문하기에 전심하였다. 은행 지배인은 가드쮀예브가 여기서 그만 둔지가 이미 오래 되는지라 그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노라고 못내 불만스러운 듯이 랭랭하게 대꾸하는 것이였다.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선뜻해짐을 느끼면서 긴장되였다. 그러면 그 청년이 결국은 유혹에 견디여 내지 못했던가?

나는 쏠따노브 일가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리로 찾아 갔다. 문은 싸아다트의 어머니가 열어 주었다. 나는 라쑬르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지라 그가 싸아다트의 모친임을 인차 알아 차렸다. 내가 가드쮀예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자 그 녀자는 대뜸 신경질적으로 어깨를 바르르 떨면서 드러내 놓고 짜증과 화를 내면서 이렇게 뇌까렸다.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 백여 있는지, 전 몰라요. 또 알구프지도 않구요!

—그럼… 싸아다트는요?— 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답으로 그녀자는 나의 면전에서 꽝하고 문을 닫고 마는 것이였다.

며칠후 공화국 각지를 려행할 행로를 고르는 과정에 나는 이미 귀에 익은 어느 한 소도시의 이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바로 그 도시는 한때 라쑬르가 비서로 일하던 곳이였다. 아제르바이쟌 공청 중앙 위원회의 어느 한 일'군이 나더러 하는 말이 그 구역의 공청 단체에 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의 길'동무는 면화 파종 이야기며 농산 기수들의 강습회 이야기며를 이것 저것 하다가 문뜩 말김에 귀에 익은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였다.

—누구, 누구요?—하고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다급히 물었다.

—가드쮀예브…하고 그는 조용히 되뇌이였다.

나는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그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는 듯이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나의 흥분된 심정을 눈치챘던 모양으로 곧 이야기를 중단하고 동정하듯 이렇게 묻는 것이였다.

—가드쮀예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아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렇소—하고 나는 대꾸하였다—라쑬르라는 사람을 알지요.

청년은 저으기 놀란 눈으로 나를 흘끔쳐다 보더니 사뭇 애매하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정말인가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라쑬르는 어데 있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고 미처 물어 볼 겨를도 주지 않고 마치 나의 가슴 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듯이 이렇게 말을 잇는 것이였다.

—그럼 당신은 그에게 있은 사건을 모르고 계시는가요?

× ×

일인즉 이렇게 되였다. 려관 발판에서 버러졌던 그 사건은 꼬리를 물고 더 계속되였던 것이다.

라쑬르가 자기 방에 돌아 와서 문을 꼭 닫고 앉아 있는데 례의 객들이 다시금 그를 찾아 들어 왔다.

—1만 5천이요—하고 징그러운 혀꼬부러진 바스의 소유자인 보석부 부장이 코소리로 뇌까렸다.

이것은 실로 매혹적인 수'자였다. 싸아다트가 확신하는 바에 의하면 오로지 이만한 돈이 있어야만 가정적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였다. 이 순간 분명히 라쑬르는 저으기 사팔뜨기인 싸아다트의 불타는 두 눈과 그리고 사치하고 아담한 딸린의 가구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새 아



빠트의 호화로운 객실을 눈앞에 그려 보았을 것이다.

그날 라쏠르는 말 한마디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진작 사흘 후에 보석 부장이 가방에다 1만 5천 루블리를 넣어 가지고 와서 마치 새 살림의 출발을 축하라도 하려는 듯이 호기있게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양을 떨었을 때 라쏠르는 와락 화를 내면서 돈가방을 방바닥에다 메따 꼰지고는 가방 임자를 녹초가 되도록 사정없이 후려갈겼던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 검찰소에 전화를 걸어 검찰소에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방까지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드쉐예브의 《유리한 출세》는 이렇게 첫 발작에서 곧 끝장이 나고 말았다. 스물두살 나는 젊은 청년은 끝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여 냈으며 자기의 행복 문제를 그렇게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결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어느덧 오디나무며 앵두나무들 사이에 호젓하게 서 있는 자그마한 집 앞에 당도하였다. 운전수가 신호를 울리니까 사립문에서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녀자가 뛰어 나왔다.

하이얀 옷을 입은 그 녀자는 저으기 사팔뜨기인 명랑한 눈으로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였다. 이윽고 그 녀자는 나의 길'손에게 가무 잡잡한 손을 내밀며 상냥하게 말하였다.

—방으로 들어 가세요! 라쏠르는 인제 곧 돌아 올거예요. 그인 지금 구역 공청에 가 있어요

《쓰메나》 1957년 17호에서

리 춘 섭 편역

편집 위원 김 학 연 (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생활 제 12호 1957년 12월 5일 인쇄

발해소 민주청년사 1957년 12월 10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5 원) ㄱ—40707 50,000부

오 락

눈 덩어리 던지기

1. 유희 조직

①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①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② 한 편의 유희자들은 출발선을 향하여 일렬 종대로 정렬한다.

③ 다른 한 편의 유희자들은 상대편 유희자들에 대하여 경기장 우측 선 우에 4메터의 간격을 두고 정렬한다.

④ 지도자는 유희자들을 잘 볼 수 있는 좌측 선우에 위치한다.

⑤ 유희장 우측편 선 우에 위치한 유희자들은 눈 덩어리를 3~4개씩 준비한다.

3.. 유희 방법

① 출발선을 향하여 종대로 정렬한 유희자들은 지도자의 출발 신호에 의하여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에 있는 눈 무지의 사이를 지꾸자꾸(〜〜)형으로 뛰여 간다.

② 이 때 우측 선 우에 있는 유희자들은 준비된 눈 덩어리로 달려가는 상대편 유희자를 마친다.

③ 달려가는 유희자는 상대편 유희자들이 던지는 눈 덩어리를 피해가며 결승선까지 도착한 다음 출발 신호에 의하여 다음 유희자가 같은 동작으로 결승선에 달려간다.

④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유희가 끝나면 교대하여 다시 유희를 계속한다.

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실시하되 눈 덩어리에 적게 맞은 편이 승리한 것으로 된다.

4. 주의할 점

① 달리는 유희자가 상대편 유희자가 던지는 눈 덩어리를 잡으면 맞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것.

② 달리는 유희자는 반드시 눈무지 사이로 지꾸자꾸(〜〜)형으로 달릴 것.

③ 눈 덩어리에 돌이나 유리 쪼각 등을 넣지 말것.

④ 눈 덩어리를 던지는 유희자들은 설정된 유희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⑤ 유희장의 크기는 유희자들의 체력, 유희자들의 수에 따라 조절할 것.

